

지구촌 넘버원 뉴스, ‘파리 테러’ 공격!

뉴스위크, 세계의 10대 뉴스 선정(THE BIGGEST NEWS EVENTS OF 2015)

1. 공격 받은 파리
1월 7일 풍자 주간지 샤토리 엠티도의 사무실에 테러리스트가 난입해 직원 10명과 경찰 2명이 숨졌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만화로 풍자한 데 대한 보복으로 알려졌다. 11월 13일 금요일에는 최소 7곳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130여 명이 사망했다. 수니파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2. 미국 2016 대선 여정 시작
민주당에선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를 선언해 선두를 달린다. 공화당에선 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 외 15명이 출마해 무한경쟁을 펼친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동주의적 막말로 공화당 경선판을 뒤흔든다. 그러나 ‘무슬림의 미국 입국 금지’ 발언으로 발목을 잡힐지 모른다.

3.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4월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서 경찰에 체포되던 중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가 숨지자 그를 추모하고 경찰의 공권력 과잉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변했다.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볼티모어시는 유가족에게 보상금 6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4. 그리스 부채 위기
2009년 시작된 금융혼란이 2015년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를 중

심으로 전개됐다. 그는 8월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긴축 요구를 받아들여 86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 국가 부도를 면했다. 그리스는 유럽의 경제 우등국이었지만 사회주의운동당이 집권하면서 운명이 반전됐다.



5. 네팔 지진
4월 25일 규모 7.8의 강진이 네팔을 강타했다. 네팔만이 아니라 중국·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로 여파가 번져 84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트만두 계곡의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과 같은 여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파괴됐고, 에베레스트 산에도 눈사태가 발생해 2014년 눈사태 이후 최대 사망자가 발생했다.

6. 결혼 평등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지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

하는 뜻에서 백악관을 무지개색 조명으로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 전역에서 10만 쌍에 가까운 동성커플이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7. 명왕성 근접 비행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탐사선 뉴호라이즌이 2006년 1월 지구를 출발해 2015년 7월 14일 명왕성에 최대로 근접하는데 성공했다. 탐사선이 지구에서 50억km 떨어진

진 곳에서 보내온 명왕성의 모습은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는 명왕성의 면모를 드러냈다. NASA는 최근 뉴호라이즌이 근접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을 공개했다.

8. 유럽 난민 위기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14년보다 4배 많은 약 90만 명의 난민이 유럽에 들어왔으며 시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 난민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9월 세 살배기 시리아 아기가 아ylan 쿠르디의 시신이 터키 보드룸 해안가로 떠밀린 사진이 공개된 뒤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분할 수용하는 데 합의했지만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다.

9.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사회복지센터에서 무슬림 부부가 총기를 난사해 14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했다. 연방수사국(FBI)은 그 부부가 상당 기간 급진화 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IS 소속이 아니라 자가 급진화한 테러리스트로 추정되지만 페이스북에 IS 추종 메시지를 남겼다고 알려졌다.

10.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류의 재앙을 막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2월 12일 195개 참가국 장관들이 2020년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적용될 신 기후체제의 최종합의문을 채택했다.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의무를 지킴으로써 한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면에서 계속〉
그리고 가장 많이 공유되고, 북마크된 말씀으로 여호수아 1: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올 한해 동안 가장 즐겨 찾고 공유한 탐 5구절은 다음과 같다:

1. 잠언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2. 빌립보서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3. 여호수아 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4.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5. 로마서 15: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버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 연시를 맞아 사람들은 일년 성경일독을 하기로 결정하지만, 2월 말씀이면 1/3이 중단하게 되고, 5월에 가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그만 두게 된다고 전한다.

〈1면에서 계속〉
주로 흑인 옹의자들을 사살하는 경찰 폭력이나 일반 대학들에서의 인종 갈등을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10. 로마교황청 개혁 바람. 프란시스코 교황은 계속해서 कै톨릭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미 수녀들에 대한 보호와 감시를 끝냈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서는 교회, 그리고 재혼과 이혼에 대한 교회법들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RNS 결선 투표까지 올라온 다른 종교 뉴스들이 있다:

11. 시드 R. 파록 부부가 의한 캘리포니아 샌 베르란디노 테러 사건: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어지는 테러에 대한 공포가 증폭됐다.

12. 켄터키 로완 카운티 킴 데이비스 서기의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 거부 사건: 보수적인 크리스천 영웅의 등장으로도 불리우는 동 사건은 신앙 양심에 따라 대법원의 동

성결혼 합헌 판정 이후, 공개적으로 이에 반대했기에 그 반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데이비스는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 받지 않기 위해 결혼 증명서에 서명을 안하고 감옥행을 택했다.

13. 젊은 세대들의 탈 전통적인 종교화: 퓨리서치는 설문 조사를 통해, 전통적인 종교와는 더 이상 관련이 없는 미국인들이 23%정도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다.

14. 1월 샤토리 엠티도지 만평에 등장한 무하메드 선지자 풍자에 따른 테러.

15. 미 대선 예비 경선주자들의 복음주의 유권자들에 대한 지지 호소: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에 무슬림을 입국시켜서는 안된다는 초강경 주장까지 했다.

〈6면으로 계속〉

소망 칼럼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마음은 신체의 중심 기관이다. 마음은 감정, 욕망, 열정, 사고(思考)의 중심지이다. “마음”이란 단어는 사람의 내적 생명의 전체를 대표하는 총괄적인 명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며 마음의 열매인 행실(行實)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 인간의 참된 본질은 그 외면의 아름다움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곧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인간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 생명 전체의 그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복 받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씻어 깨끗이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렘17:9)고 하였다. 우리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며,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주장하신다. 렘4:14에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인격자와 비인격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인격자는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하고, 비인격자는 마음이 깨끗지 못하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약속을 지킨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의 기본은 약속이다. 그러기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거나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혀 살게 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믿을만한 사람이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카프카(Kafka, Franz)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라고 하였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마5:8).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축복하신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을 깨끗이 씻어 청결케 해야 한다. 씻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죄악으로 심히 더러워졌고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렘17:9).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 있다(요일1:7). 그리고 말씀의 물과 기도로 깨끗하여질 수 있다. 딤후4:5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고 하였다. 시119:9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니이다”라고 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경청하고, 아멘으로 받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언어 행실도 착하게 된다. 사람의 행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벰전 1:23에 “너희가 거둔단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였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실천하라. 그러면 신앙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마음도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체스터 필드는 “사람이 결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음이 더 훌륭하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마음이 더 더러워지지 않고 악해지지 않고 깨끗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변치 않는 성도들 되기를 바란다.



SHEPHERD UNIVERSITY

(Candidacy)

쉐퍼드대학교는 **ATS** 뿐만 아니라 **WASC** 및 **ACICS**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고등교육 인증협회(CHEA)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쉐퍼드대학교 학생 모집



군 장학금 무상지원 프로그램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은 ATS 정회원 학교로 유명 신학교들로의 편입, 진학, 학점교류 및 동일한 학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통신 과정 개설



동시 통역 강의

왜 쉐퍼드신학대학인가?

1

타 신학대학과는 다르게 WASC, ACICS, ATS 연방 교육국 인준을 통하여 타 [일반 명문 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2

목회, 성적, 근로, 가족 장학금등,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3

미국 전역 군인 정부지원 무상학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미 군목(장교)로 자원 입대가 가능합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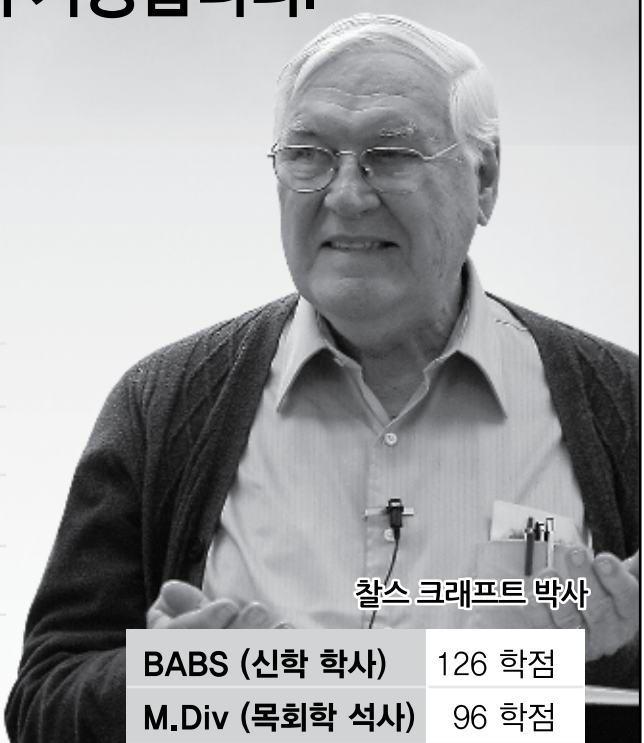
온라인 통신 과정과 동시 통역 강의를 제공합니다.

6

유학생의 영주권 취득 자격은 연방정부교육국(CHEA)에서 정회원으로 인증된 학위뿐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원로 학장



찰스 크래프트 박사

입학문의 | 323.550.8888 Ext.8231 | SEVIS I-20발행

WEBSITE | www.shepherduniversity.edu

BABS (신학 학사)	126 학점
M.Div (목회학 석사)	96 학점
D.Min (목회학 박사)	42 학점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산타 스칼라(Santa Scala)

죄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세익스피어는 자신의 4대 비극에서 모두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으로 삼은 맥베드의 입을 빌려 말하기를 “아라비아 향수를 모두 동원한다 해도 이 손에 묻은 죄를 말끔히 씻을 수 없다”고 독백했습니다.

나라모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심리착한인 모든 문제의 99퍼센트는 바로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존경받는 도덕적인 사람 12명에게 “도망가라!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라는 협박성 메일을 보냈더니 24시간 이내에 12명이 모두 국외로 도망을 쳤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문제 속에서 살고 있고, 죄의 늪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들어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아직 들어나지 않았기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롬3:23)고 선언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는 이발을 하고 또 목욕도 합니다. 깔끔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 양심의 가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 누구나 경험하는 깊은 고민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요?

말틴 루터는 수사였지만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심각하게 고통하다가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산타 스칼라(Santa Scala)의 스물여덟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듣고 그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기대를 품고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그 계단은 일찍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올라가셨던 빌라도 총독의 관청에 있었던 스물여덟 개의 대리석 계단입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헬레나 여사는 아들의 왕권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돌계단들을 모두 옮겨왔습니다.

지금 그 돌계단들은 요한 성당 맞은편에 설치하였고 닳지 않도록 나무로 덧씌워 놓았습니다. 덧씌워놓은 나무 틈 사이로 보이는 돌계단은 하얀색의 대리석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은 너도나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나름대로 죄를 자백하면서 말입니다. 아마 말틴 루터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그 계단을 올라가던 중 서너 계단을 남겨두고 로마서 1:17의 말씀이 선포처럼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를 짓누르던 죄의식에서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4세기 말 경 밀라노에 있던 어거스틴이 경험한 은혜요,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주 타락한 본성의 요구에 미혹되어 무엇인가 행함으로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구원을 위해 행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떤 행함을 통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5년도에 개인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진정한 삶의 터닝 포인트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푸 / 른 / 초 / 장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동쪽에 뜨는 찬란한 태양 못지않게 서쪽에 지는 태양과 노을이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에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아무리 기대와 희망 속에 이루어졌다는 할지라도 마지막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날 때 마칠 때의 태도가 본심이라고까지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생은 저의 업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미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자 중에 잊히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분들의 이해가 아니었다면, 그분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 그때마다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큰일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도 괴로웠던 과거는 다 잊게 해주시고 감사한 사람들과 활동사진처럼 교대교대로 떠오르는데.... 사랑받으며 사역해온 날들을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교교회에 있을 때 권찰님의 남편이 암으로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뚜렷한 소리로 “전도사님, 제가 이 병이 아니었다면 죽을 때까지 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결혼 때 약속했기에 말리지 않았지만 나는 교회 다니지도 예수를 믿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병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

을 가슴에 새겨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제 2차 전도여행 말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송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별

지금까지의 신앙 결산

(사도행전 20장 13-38절)

만약 바울 사도가 참지 못하고 싸웠다면, 내가 이래도 최고 학부를 나오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하고 교만했다면, 신경질 날 때마다 화를 내었다면 바울은 화병으로 열 받아 죽었거나 사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여기 참았다는 말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참으면서 살았습니까? 복된 일입니다.

2.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20절).

만약 바울 사도가 참지 못하고 싸웠다면, 내가 이래도 최고 학부를 나오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하고 교만했다면, 신경질 날 때마다 화를 내었다면 바울은 화병으로 열 받아 죽었거나 사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여기 참았다는 말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참으면서 살았습니까? 복된 일입니다.

2.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20절).

성령에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 정도가 아니라 복되지 못한 일입니다.

3. 성령의 감동과 인도대로 살았습니다(23절).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면 성령의 사람이고, 악령의 지시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입니다. 성령은 불순종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교만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면서 사는 일에 무관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해는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속지는 아니하십니다.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면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은 위선이요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실한 성도에게는 양면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따르므로가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한 자가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낮아졌습니다. 복음을 위해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교회관, 분명한 직분관, 분명한 사명관,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실천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너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걸 다르고 속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끝까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까지의 신앙결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헌신에, 나의 충성에 감동하거나 흠찬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렵돈에게도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6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②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③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④ 신앙고백서 1부
- ⑤ 명함판 사진(2"×2") 2매
- ⑥ 입학 전령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①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② 원서접수마감 : 2016년 1월 29일(금) 오후6시
- ③ 입 학 시 험 : 2016년 1월 30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④ 개 강 부흥회 : 2016년 2월 1일(월) - 3일(수) 저녁 8시
- ⑤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필자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설교단에서 주일성수에 대하여 많이 강조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수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기에 그들이 주일에 올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일(안식일)마저도 일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는 주일(안식일)에 안식과 예배와 관계없이 계속 일하는 것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글이 아닙니다. 필자도 철저한 주일성수에 대해서 가르쳐왔고 주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경우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주일에 일하고 하루 종일 거룩한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을 주일을 합당하게 지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일에 매우 굶주린 그리스도인이 식당에 가는 것은 잘못일까요? 의사는 주일에 생명을 다루는 일이지만 병원에 있어야 할까요? 교회에 있어야 할까요?

였습니다. 이때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와 지켜야 할 바를 지켰다고 말씀합니다(대하23:6). 안식일에도 이런 일이 정당하게 인정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예수님 제자들의 부득이한 경우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을 구약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되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말씀하시며,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주님의 결론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12:7-8)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먹는 것을 금지하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막2:27). 하나님은 사람들이 금해야

도 주장합니다. 그는 주일 준수에 대해서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일을 엄격히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는 있지만 집단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부득이함에 대한 기독교 초기의 역사적인 측면들

첫 4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주일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일요일에 일을 제쳐놓기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날과 이어지는 첫날들에 제자들을 만나심으로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화된 것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으며 자주 압박을 당했기 때문에 비록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간단히 하루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도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교 공동체와 전통이 뒷받침해 주고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일의 첫날에 쉬고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긴급하게 혹은 필수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부득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는 말: 정말 부득이한 경우인가?

제가 아는 교우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문을 열어야 하지만 일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일에 예배하러 올 수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아 주일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죄책감과 죄스러운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여 제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을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기도하고, 또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한 분별력을 위해 생각해보자는 목회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득이한 일의 경우는 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서 각 경우에 따라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진정한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날이요 온전히 예배드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주일(안식일)에도 부득이 일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기 발전소와 같은 곳은 쉬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관도 문을 닫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간호사도 의사를 도와서 주일이지만 반드시 일해야 할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부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경찰들이 주일에 중한 범죄들이 발생했을 때 호출하면 뛰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머물러야 할까요? 갑자기 불이 났을 때 그리스도인 소방관들에게 전화가 오면 그들은 교회에서 뛰어나가야 할까요? 예배의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주일에 몹시 시장한데 금식해야 할까요? 아니면 식당에 갈 수 있을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가 심하여 몇 시간 동안 낮잠을 자는 것은 어떤가요? 이런 문제 이외에도 쉽게 결론지어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 산업 중에 일주일에 하루 동안 문을 닫을 수 없는 일들이나 직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구약에 안식일에 부득이하게 전행한 경우

안식일에도 전쟁을 하는 구약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 모든 군사들은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았고 옛새 동안 그렇게 했고, 제사장들은 일곱째 날에 그 성을 일곱 번 돌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안식을 여긴 것이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리고 성안에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습니다(수6:21).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쟁과 살육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3장에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인 아달라가 자기 아들이 죽은 후에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없애버리려고 왕자들을 집단 살인했습니다. 칠년 후에 제사장 여호아다가 용기를 내어 아하시야의 아들 중에 몰래 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요아스 왕자를 즉위하려고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요아스 왕자를 호위하며 아달라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안식일에 다 죽

할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삶과 안식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제사장의 노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4. 부득이한 경우들의 다른 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하냐?” 할 때 모든 사람이 잠잠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치신 후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눅14:5) 하셨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구하는 일은 자비한 일이며 동시에 삶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동물은 매일 먹이를 주고 젖을 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농업을 하려면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최소한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방식을 허락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부득이한 일에 대한 논쟁

주일 엄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리 놀스(Gary North)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현대 문명사회의 구조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안식일에 꼭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경우라면 그런 직업은 불경건한 것이기에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이나 전기와 난방산업은 주일에도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구약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수적인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슈어틀리(Bryan Schwertley)는 정반대로 철강소와 전기 발전소의 유지는 필수적인 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개혁신학자의 “안식일과 현대산업문명”이란 글에서 “고대로부터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화 시기에 발생한 엄청난 인구밀집 지역들 때문에 인류는 이제 집종화된 형태의 에너지 분배가 필요하며, 의학과 환경적인 혜택을 위해서도 집중되고 민율만하고 위험한 에너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다”라

고 날은 준수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온전히 쉴 수 있기까지는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사회에서 좀 더 커진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득이함의 원리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7번은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히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일이나 오락까지 금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 간에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대답함으로 부득이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이라는 몇몇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함이란 인간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안식일이나 주일에도 다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일에도 필수적인 일을 위해서 직장에 가야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철강소에서 용광로를 돌리는 것 역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굶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식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우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의료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먹어야만 할 상황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의사, 간호사, 경찰, 소방관 등 안식일에 적합한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부득이한 일도 주일에도 일해야 한다면 가능한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막2:27). 주일날 음식을 제공하기

기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절한 자세인 예배와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한 적절한 자세인 자비를 위해 명령하신 날이며,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확장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며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행동도 이런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직업, 사업,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정말 부득이한 일이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지 물어 보고, 성경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메일: yoonsuklee@hot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어떤 사람이 빌립보서 2:6-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란 말을 잘못 해석하여 예수님이 혹시 초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데, 바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나하임에서 Kim

A: 이 빌립보서 2:6-7절은 매우 신중히 해석하여야 할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자기를 비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자기를 비었다는 이 구절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리스도의 영광된 신분을 벗었다는 것이지 주님의 신성이나 그의 속성을 포기하거나 비우셨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게고(wolgans F. Guss, 1819-1891)란 독일의 대학교수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모든 신성적 속성을 단념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또 이 게스의 극단적인 설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 케노시스라는 또다른 이단적 학설입니다. 케노시스 이단은 주께서 자기

빌2:6-7 “자기를 비어”는 신성포기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심 의미

를 비우셨다는 말의 헬라어 “헤아우톤 에케노-센”에서 비롯한 케노시스파의 이단적인 주장은 주께서 절대적인 속성 즉 거룩, 사랑, 진리 등 절대적인 속성들은 가지셨으나 상대적인 속성 즉 전지, 전능, 편재 등 상대적인 속성은 포기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예수그리스도가 성육신 때에 신성의 일부를 버리셨다면 그는 벌써 완전히 못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케노시스는 기독교 이단인 것입니다.

빌2:6절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의 본체는 헬라어로 “물페”라고 하는데 이 물페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정체를 가리킨다고 한국의 주경신학자였던 박윤선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울서신 주석에서 말합니다. “자기를 비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내놓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떠나 종이 되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비운 것이냐? 에서 신학 주경신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슨은 그의 주석에서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율법에 대한 권리 둘째, 부요하심에 대한 권리 셋째, 하늘의 영광 넷째, 그의 직권행사의 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해석이나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무조건 여자적으로 해석하면 좋은 번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7절의 ‘자기를 비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도성인신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강사: 라흥태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사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마노보(MANOBO)



8 개의 마노보 부족들의 통합 프로파일.

마노보족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거주하는 여러 종족들이며, 마노보 어계에 속하는 언어들 중 하나를 사용한다. 그들의 기원은 동남아시아의 주변 섬들로부터 건너온 초기 말레이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그들의 공통된 문화 언어와 말레이 유산이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마노보족 군에는 8개의 집단이 포함되는데, 코타바토(Cotabato)

마노보, 아구산(Agusan) 마노보, 디바바원(Dibabawon) 마노보, 마티그 살루그(Matig Salug) 마노보, 사랑가니(Sarangani) 마노보, 서부부키드논(Western Bukidnon)의 마노보, 오보(Obo) 마노보, 타가바와(Tagabawa) 마노보족이 있다. 그들의 인구는 대략 15,000명 미만에서 50,000명 이상까지 이르는 데 주로 정치적 경계나 지형에 따른 명칭에 맞춰 연결돼있다. 예를 들어, 부키드논(Bukidnon)족은 같은 이름의 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아구산(Agusan)강 계곡 근처에서 사는 아구산족은 그들의 거주지역 명칭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

8개의 마노보 부족들은 대개는 모두가 매우 비슷한데, 거주지가

삶의 모습

마노보족의 가장 일반적인 생활 양식은 농경생활이다. 그러나 경작 방법은 매우 원시적 수준으로, 예를 들면 부키드논(Bukidnon)족은 주요 작물로서 옥수수와 쌀을 재배하는데, 일부는 구제화된 기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부들은 아직도 화전법을 사용한다. 코타바토(Cotabato)족은 카인긴(kaingin)이라는 경작법을 이용하는데, 이는 경작지를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며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묵혀두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것은 많은 땅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마노보족은 가부장적이며 일부 다처제가 흔하고, 남자의 부유한 정도에 따라 가능하다. 하지만 부키드논족의 경우는 대부분 일부일처제이며, 권력을 가진 "다

투"(datus)나 족장의 경우는 예외다.

마노보족의 정치구조는 모두 상당히 비슷하다. 술탄(sultan)이라는 통치자가 부족장이 되고 그 아래 왕족과 비(非)왕족 계급들이 있다. 왕족만 왕위에 오를 수 있으며, 비(非) 왕족 계급은 왕족의 권력과 권위 아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정치적 측면들은 종종 사회적 측면과 연계돼있다. 예컨대, 결혼식과 같은 많은 사회적 행사들은 정치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결혼 중매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신랑과 신부 양측은 지역다투(족장)를 통해 매듭져야만 한다.

8개 마노보 부족들 간 인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족들 다수가 변화하는 세계와 애써 부대끼고 있으며 외부세계의 압박은 그들 각각의 문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신앙

마노보족의 종교 신앙은 인간들

의 삶에 개입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영들이 있다는 개념을 따라 발전했다. 이 영혼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인간 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그 영들은 인간처럼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그 성품들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화를 내거나 즐거워하기도 한다고 믿는다.

마노보족의 종교양식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공통된 맥락이 있는 것 같다. 각각의 문화는 유일한 "위대한 영"의 존재를 믿는데, 이 "위대한 영"은 대개는 창조주로서 여겨진다.

마노보 종족들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부족들의 종교 신앙이 그들에게 다소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마노보족은 자신들의 종교양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새로운 관행들을 자신들의 신앙체계에 통합시켰다.

필요로 하는 것들

많은 마노보 부족들이 사용하는 농사기술은 매우 원시적이며, 그러한 노동 비효율성은 공동체의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농업 개발프로젝트들을 통해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문화영역에 대한 것들로, 주변의 큰 부족들로부터 자신들의 고유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상실할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고유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영적으로, 마노보족은 구주(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고자 바라시는 사람이 풍성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창조주 영"이라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누가 그들에게 말해주겠는가? 기도만이 영적 승배의 요새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알라는 유일신' 숙제시킨 미 교교, 학부모 항의에 휴교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문구를 써오라는 숙제를 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에 휴교 결정이 내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보도했다.

버지니아 주 오거스타 교육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들을 향한 구체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우려해 담당 구역 내 학교들을 휴교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거스타의 '리버헤드' 공립 고등학교의 한 지리 교사는 학생들에게 아랍어로 된 문장을 주면서 직접 손으로 이 문장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했다.

문제의 이 아랍어 문장은 '알라 이외의 신은 없다. 모하메드는 알라의 전달자다'라는 뜻이었다. 교사는 이 문장을 학생들에게 영어로 번역해서 알려주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암송하게 하거나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

학부모들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분개해 집단으로 항의 전화와 메일을 학교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숙제를 단순히 서체 쓰기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숙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 학교가 학생들의 종교를 바꾸거나 주입하려는 수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문제가 된 수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겠지만 다른 문장으로 서체 쓰기 과제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임현수 목사 건강 양호하다" 캐나다 외교단 면담

캐나다 외교관들이 북한에 억류된 뒤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은 임현수(60) 목사를 직접 면담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리 2명과 통역사 1명이 지난 18일 오전 평양에서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구호활동가인 임 목사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목사의 건강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비교적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외교관들은 또 16일 임 목사에 대한 북한 법원의 선고공판에도 참관했다.

리사 박 대변인은 "임 목사가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걸 알고 있으며 임 목사도 자신이 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에게 북한 측이 임 목사에게 고혈압약을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부연했다.

임 목사는 1997년부터 20여년 동안 북한을 여러 번 드나들며 탁아소와 교육기관 등에서 인도적 구호활동을 해왔다. 이후 지난 1월30일 북한에 도착한 뒤 연락이 끊겼다.

지난 7월 임 목사는 북측이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마련한 기자회견 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를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북한을 왕래하면서 '종교국가'를 세우려고 했다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북측의 강요에 의해 한 일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후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 16일 임 목사에게 '국가전복 음모' 등의 혐의



를 씌워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온라인에선 임 목사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임현수 목사 무사귀환"... 인터넷 서명 2만명 돌파 세계적인 서명운동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한글과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임 목사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호소글이 올라와 21일 오후 2만3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동참했다.

호소글을 올린 네티즌은 "아무도 가려 하지 않은 곳에 몸소 희생과 봉사로 하나님 사랑을 전한 임 목사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캐나다 정부와 유엔의 노력이 꼭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30일 북한에 도착한 뒤 연락이 끊긴 임 목사는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선교사다. 북한에 억류된 캐나다 국적의 한인은 2007년 김재열 목사 이후 번째다.

유니세프 "보코하람, 학생 100만명 학교로부터 차단"

나이지리아와 인근 3개국의 학생 약 100만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보코하람의 만행으로 학교로부터 차단돼 있다고 국제구호단체 유니세프가 전했다.

2천개를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이중 수백 곳은 보코하람에 의해 공격 또는 약탈을 당했거나 불태워졌다고 유니세프는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북동 지역을 파괴한 보코하람은 인근 카메룬 북부, 차드, 니제르 등으로 세력을 확산해왔다. 보코하람은 지금까지 약 17만명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코하람을 피해 집을 떠난 인구가 2백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BBC는 보르노 주(州)를 포함해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있는 수많은 학교가 보코하람에 끌려온 사람들의 캠프로 변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보코하람은 이슬람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구식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학교들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보코하람은 지난해 4월 북동부 치부 마을에서 200명 이상의 여학생들을 납치한 바 있다. 2009년 군사작전을 시작한 보코하람은 현재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해 IS의 "서아프리카 지방"으로 자칭하고 있다.

뉴욕 17도·헬싱키 10도...‘크리스마스 맞아?’

연말연시로 지구촌이 들뜨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상고온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연감생심이 될 전망이다.

AFP 통신은 21일 "아이스 스케이팅, 눈싸움, 향신료를 넣고 따뜻하게 데운 와인의 계절에 새가 울고, 꽃이 피고 까까 눈이 스키장을 덮고 있다"며 온난화로 달라진 유럽의 연말 풍경을 전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핀란드 헬싱키의 전달 기온은 섭씨 10.3도를 기록했다.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과 에스토니아도 10도 이상을 나타냈고,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공원의 기온은 무려 16.9도였다.

'눈과 얼음의 도시' 모스크바마저 영상의 날씨를 보였다. 러시아의 기상 예보관은 "22일 평균 온도는 5도로, 겨울 평균 기온인 영하 6.5도보다 거의 12도 이상 높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에 있는 자연 아이스링크 1천200곳이 울겨울 개장하지 못했고, 붉은 광



장의 인공 아이스링크도 이날 기술적인 이유로 문을 열지 못했다.

이탈리아 알프스 스키장에서도 인공눈에 의지하고 있고, 독일 드레스덴에는 빙꽃이 피었으며 잉글랜드에서는 수선화가 만개하고 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의 한 골프장에서는 "12월 중순에 잔디 깎는 기계가 나왔다!"는 트윗을 올렸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크리스마スイ브인 24일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미국 기상청 등 기상 전문매체의 예보를 인용해 미 언론이 이날 전한 내용을 보면 오는 24일 보스턴 16℃를 비롯해 뉴욕 17℃, 필라델피아 18℃, 워싱턴DC 21℃, 샬럿-애들렌타 22℃ 등 대서양과 인접한 동부 도시들은 20도 안팎의 높은 기온을 기록할 전망이다.

워싱턴DC의 경우 24일 최고기온이 24도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도 있어 지난 1933년 21도의 종전 기록을 82년 만에 갈아치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부 최북단 메인 주의 기온도 10℃대에 이르는 등 크리스마スイ브가 이번 주중 가장 따뜻한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 전문가들은 텍사스 동부 휴스턴을 비롯해 아칸소,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조지아 주와 플로리다 주 일부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폭우와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불어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한편 바나리서치는 지난 1년 동안 설문들을 통해 도출한 사건들을 통해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 기자들의 투표에 의한 10대 뉴스 선정보다는, 해당 뉴스들에 따른 미국인들의 반응이나 생각들 즉 경향을 엿볼 수 있다.

1. 동성결혼 합헌으로 더욱 선명해진 미국 문화 차이.

6월 26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은 인정됐다. 이러한 역사적인 결정은 동시에 미국인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실례로, 신앙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사는 크리스천일수록 대법원 판결에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명목상의 40대 미만의 크리스천들 중 73%가 대법원 판결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진지한 40대 미만의 크리스천들은 35%만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40대 이상의 진지한 크리스천들은 26%만이 찬성했다.

2. 종교적 자유에 대한 관심 증가.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따른 연해 반응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은 바로 동 관점이 종교적 자유에 대하여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감지했다. 바나리서치는 2012년부터 미국인들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2년에는 "미국 안에서의 종교적 자유가 지난 10년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설문에 33%정도가 찬성했다. 그러나 2015년 들어서는 41%로 증가했고, 특별히 복음주의자들 중 77%가 우려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 2012년에 비하면 17%나 수직 상승한 것이다.

또한 특정 종교를 가지지 않았거나 무신론, 불가지론자들 역시 2012년 23%에서 32%로 증가되어,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따른 미국인들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최근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서는 유례없는 많은 비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지구촌을 강타한 '역대급' 엘니뇨로 올해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서 흰 눈을 볼 수 있는 곳은 로키 산맥이 관통하는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테나, 아이다호, 유타와 5대호 근처인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등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다.

이런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 프랑스 기상 관계자는 "해마다 그런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며 자연스러운 변동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따뜻한 겨울 날씨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 같은 기후 변화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 라면서도, 앞으로 북유럽 주민들도 따뜻한 겨울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도 올해가 관측 이래 가장 기온이 높은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럽은 이미 1910년 이래 가장 더운 11월을 보냈다.

영국 기상청은 내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961-1990년보다 0.84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지구 온도는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3. 후기-크리스천 사고들 급부상.

청교도들에 따라서 기독교로 국가 모델을 형성했던 미국 특별히 정치와 문화 영역에서 기독교 영향력이 움츠러들고 있다. 바로 종교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미국인들의 증가와 교회 출석을 저하 그리고 종교적 자유가 위축될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미 전역에서 세속화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바나리서치는 지난 7년 동안 무려 6만명 이상에게 설문을 통해, 미 성인들의 탈종교화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인들 중 자신들을 "후기-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하는 비율이 2년 사이에 37%에서 44%로 거의 미국인 중 절반 정도가 기독교와는 이별을 한 상태다.

4.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엇갈린 의견 증가.

미국 종교 지형도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도는 항상 중심에 있었고 계속해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엇갈린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예수는 "역사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한다(92%). 그러나 예수의 역사적인 실존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밀레니엄을 중 48%만이 예수는 하

나님이었다고 믿고 있고, 젠-엑서는 55%, 부머들은 58% 그리고 엘터스는 62%이다. 따라서 젊은 세대일수록 예수에게 완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비율이 저조하다. 즉 밀레니엄(46%), 젠-엑서스(59%), 부머(65%) 그리고 엘터스(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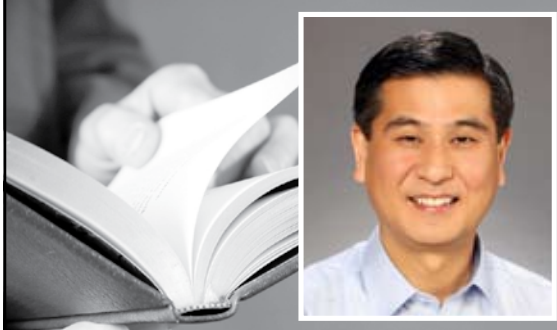
5. 미국인의 자아 정의 기준: 가족, 국가 그리고 신앙.

많은 요소들이 인간을 정의하는데 동원된다. 그러나 미국인에게 있어 가장 근본 요소는 바로 가족이다. 62%가 자신들의 정의하는데 가족을 우선순위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52%는 미국이라는 국가 요소가 바로 자신을 미국인으로 정의하는데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신앙"이 바로 자신을 정의하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38%).

(14면으로 계속)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50)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 (4) -초대교회 교부(b)

이번 호에도 계속 다음 질문에 답을 합니다. 질문: 313년 속사도 시대의 마감 전의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독교(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가? 지난 호에는 이레니우스의 사상을, 이번 호에서는 서방신학의 기초를 놓은 터툴리안과 동방신학의 전통을 세운 오리겐을 소개한다.

■ 터툴리안

초대 교부 터툴리안(Tertullian, 160-225)의 기독교론의 출발점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그는 남다른 언어의 재능을 지녔다. 자연히 후대 교회가 사용하는 신학에 관한 신조어를 많이 만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이다. 그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 사상인 양태론(Modalism), 즉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이론을 배격하기 위한 그의 노력의 결과이다.

터툴리안의 공헌은 단순히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 소개한 것 이상이다. 그가 이 신비한 개념

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위격을 질서 속에 배치하는 경륜의 신비를 여전히 보장하는 한, 비록 이 셋이 성질이 아니라 위격에서 셋이다. 본질에서가 아니라 형태상으로, 능력에서가 아니라 나타남에서 셋이다. 하나님이 하나이고 그로부터 이 위격과 형태들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이름을 할당받았

니우스에 비하여 훨씬 발전된 기독교론을 제시한 것이다.

변증 교부로서의 사명을 다하던 그가 기독교론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 그 당시 영지주의(Gnosticism)와 군주신론(Monarchism)과 같은 이단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려 한 것이다. 터툴리안이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발렌티누스의 이론에 반박하면서, 그리스도는 성부와 구별된 것이지만 나뉜 것이 아님을

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지만’ 아버지로 부터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프락세아스에 반하여, 8).

나아가서 터툴리안은 성부와 성자를 동일시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주장하는 군주론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에 대해 말하지 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성경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렇게 말

성을 버린 것이 아니다. 단지 그의 성육신을 통해 그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성도들은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런 모습을 갖추 수 있을까 한탄하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하였다.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은 이루 설명을 할 수도 없다. 바로 이 순간에도 성부와 성자는 한 몸이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는 그것을 맡긴 후에 곧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프락세아스에 반하여, 27).

■ 오리겐

동방 교부를 대표할 수 있는 오리겐(Origen, 185-254)도 터툴리안과 같이 삼위일체 교리의 발전

았다. 먼저 로고스 사상을 기초로 하는 기독교론에 대하여 알아보자. 헬라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의 절대 이성을 가리킨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처음부터 소개한 로고스는 만물의 원리와 창조력을 지닌 절대자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로고스 또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오리겐은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편재하신 분이시지만, 육체를 입은 분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를 구분하려는 게 아니다. 이는 성육신 이후에 예수의 영혼과 육체는 특별한 의미에서 말씀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켈수스에 반하여, ii.9).

로고스와 예수와의 연합교리의 강조점은 그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서의 성자와 인간으로서의 예수와 분리가 없으며, 그의 몸과 영혼이 로고스와 하나가 되었다. 즉, 인성과 연합한 로고스는 언제나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지닌 신성을 동시에 지닌 것이다. 오리겐은 ‘신인(God-man)’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육체 사이에 연결교리를 하는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신인, 즉 자체의 본성을 부인하지 않은 채 육체를 취할 수 있었던 연결 교리인 실재가 태어났다”(원리에 대하여, II.vi.3). 오리겐이 그는 그리스도가 신성을 부인하지 않은 채 육체를 취할 수 있었던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후대 교회 기독교 성립에 큰 공헌을 하였다.

(10면으로 계속)

성탄시



회복의 성탄절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원 대표)

세상을 감싼 어둠은 더 짙어만 갑니다. 빛이여라, 소금이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날이 갈수록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세상은 아직도 욕망에 기생하는 유혹의 바벨탑을 또, 물질과 번영의 벽돌로 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범 앞의 하룻강아지도 되지 못하면서 사자인양 부리는 허세입니다.

지금처럼 어둠이 짙던 이천 년 전의 그 날! 천군천사의 찬송이 환한 빛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동방박사들이 보배를 드리며 경배하고 목동들은 마구간에서 평화의 왕을 배알할 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에게서 태초의 약속을 눈으로 들었고 구원의 복음을 귀로 보았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어린 양, 아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피 흘림과 단 한 번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다 구속하셨습니다. 단 한 번으로 다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쌓이고 더해져 세월이 흐르면서 단 한 번으로 다 이루신 것을 잊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피를 흘리셔야 하는 어린 양을 대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는 찬송은 해마다 반복해서 어린 양을 죽이겠다는 슬픈 애가(哀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에 주의 부모는 곤히 잠든 아기를 다시 깨워야 하는 탄식으로 지새웁니다. 이미 다 이루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다시 어린 양, 다시 십자가를 요구하는 세상은 날카롭습니다.

2015년 성탄절, 그 기쁜 날에는 이미 구원의 생명수를 마신 성도들의 합창으로 아기 잘도 잔다를 자장으로 불러 하늘보좌에 이를 향기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웃음을 대망하고 싶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ter

Online Courses (8 weeks)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리더십 코멘터리 (7)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창조적 비즈 엘리트 리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출판 이래 지금까지 3천만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이 우리에게 알려지기까지 작가 마거릿 미첼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녀는 작품을 완성한 후 3년 동안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무명작가의 작품을 받아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스 편집장을 만나

위해 새 껍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만일에 어떤 병이 걸리거나 좋지 못한 먹이를 먹었을 경우에는 껍질을 스스로 벗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뱀은 자신의 껍질에 갇혀 죽게 된다. 그래서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뱀은 자신의 껍질을 스스로 벗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리더도 같은 원리로 생각할 수 있다.

리더가 뱀처럼 껍질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 시켜야 윤리적, 신앙적 가치로 무장한 제자 키우는 리더 필요

게 되었다. 그녀는 이때다 싶어 그를 붙잡고 여행길에 원고를 꼭 한번만 읽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10여일의 장거리 여행 동안 세 차례나 전보를 보냈다. 그녀의 이런 노력이 편집장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는 드디어 원고를 읽기 시작했고 남북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하는 생생한 묘사에 매료되어 목격지에 도착한 것도 모를 정도였다. 그리하여 1936년 드디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세상에 태어났다. 세상의 모든 성취는 도전과 적극성의 산물이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라

도전정신과 적극성과 더불어 리더(Leader)에게는 자기변화와 자기혁신을 계속하는 마음이 집과 생활방식이 중요하다. 리더로서 요구되는 기본 마음은 자신이 담당한 조직과 교회를 잘 이끌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시대는 바뀌어 가는데 리더가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과 타성에 젖어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은 서서히 무너지고 리더는 실패자 혹은 낙오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의 하루는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며 자기쇄신을 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꾸자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 말은 독일의 문호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남긴 말이다. 뱀은 껍질이 단단하고 질겨서 뱀의 몸을 보호하여 준다. 뱀은 자신의 껍질을 주기적으로 벗기

신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꾸어 나가야 조직을 이끌고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생각과 습관과 고정관념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은 조직을 무너뜨린 실패자로 몰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껍질을 스스로 벗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뱀과 통하는 바가 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목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리더는 마치 뱀이 자신의 껍질을 벗듯이 목은 땅과 같은 옛 사람, 옛 습관, 옛 사고방식을 과감히 벗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리더들이여, 창조적 엘리트가 되자

무엇인가 남다른 뜻을 이룬 리더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길을 열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열어 나간다는 점이다. 소수의 창조적 엘리트들은 환경과 조건을 기다리거나 타타지름을 않고 자신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조건을 만들어 나간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 품은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환경을 열어 나간다. 그런 꿈과 비전, 그리고 실천력이야말로 우리를 위대한 미래로 이끌어 가는 신비한 힘이 되는 것이다.

시트 엘리트(Seat-Elite), 비즈 엘리트(Biz-elite)

교수와 의사,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우선

대학부터 가야한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시트 엘리트(Seat-Elite)다. 시트 엘리트는 정규 코스를 밟아 목표한 자리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도시화한 성공 시스템에 승차한 후 그곳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당신 역시 시트 엘리트다. 시트 엘리트는 자리 보전형의 다른 이름이다. 그들은 지금의 현상유지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비즈 엘리트(Biz-elite)는 상황 도전적이다. 그렇기에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목표를 지향하되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또한 기존 시스템에 기대는 방식을 버리고 기꺼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즈 엘리트의 특성은 무엇인가? ①비즈 엘리트는 자리가 아니라 가치에 도전한다. ②비즈 엘리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발견한다. ③비즈 엘리트는 스스로 질문하며 상상력을 실현한다. ④비즈 엘리트는 실패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창의와 기술, 판단력을 두루 갖춘 비즈 엘리트의 등장은 이제 우리 사회 또한 새로운 물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절박함을 갖고 있다는 다른 표현일 수 있다.

비즈 엘리트는 구태와 낡은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구성원의 본질을 변화하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교회는 부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물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뜻한다. 변화야말로 복음의 증거이기

에 비즈 엘리트는 교회와 통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이 시대에 창조적 비즈 엘리트 리더가 요구된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나아가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주위에 전파해 새로운 부흥을 만들어낸 많은 리더들을 만난다. 갈릴리 마을에서 고기를 잡던 일자무식 촌사람 시몬은 예수를 만난 후 변화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며, 교회를 세우는 반석인 리더 베드로로 바뀐다. 아브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본토 아비 집을 떠난 후 수많은 모험을 했지만, 결국 축복을 받아 많은 무리의 아비 리더 아브라함이 된다. 또 껍질이에 잔파와 욕심이 많아 남을 속이던 야곱은 천사와 씨름한 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 리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다.

이렇듯 바IBLE의 역사는 끝없는 변화의 역사이며, 이 변화가 새로운 역사를 낳고 후세에 영향을 미치는 생생한 사역의 기록인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리더와 집단과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윤리적, 신앙적 가치와 이상으로 무장한 제자로 키우는 리더가 이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은 이 시대에 창조적 비즈 엘리트 리더가 요구된다.

이메일: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파시퍼대학교 교수)

성탄절 맞이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주춧가에도 상가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시작된다. 사평센터마다 높이 세워진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 어린 아이들을 겨냥한 산타 할아버지와와 포도 부스, 크리스마스 캐롤은 사람들 사이에 들뜬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기쁨으로 충만한 계절이다. 우리의 힘으로 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그 이상 더 기뻐하고 축하할 일은 이 세상에 없을 테니 우리가 축제 분위기에 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탄절을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성탄절인 것 같다. 어린 시절의 꿈이 담긴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 담은 성탄 선물을 전하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상업화가 이 계절의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구석으로 밀어내는 것이 염려되는 일이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린다고 용돈에서 떼어 놓았던 적은 돈으로 브로치를 사드렸던 기억이 난다. 엄마가 외출하실 때 그 브로치를 달아놓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너무 썩 것이어서 집에서만 달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일년 중에 가장 매상을 많이 올리는 크리스마스 때를 위해 스토어들이 제공하는 세일 광고를 무시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백화점에 안간지 꽤 오래 되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데 무슨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느냐”는 그런 정감 같은 생각에서보다는 딱히 살 물건도 없거니와 파킹장도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북비는 것이 힘들어서 아예 갈 생각을 안 한다. 선물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다 부담 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세심한 마음을 쓴 것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백화점에 가면 밀려다니는 사람들 틈에서 세일하는 물건을 들여다보다가 필요 없는 구매를 하기 쉬워진다. 필요 없는 물건을 선물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마음이 담긴 성탄카드 한 장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하기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탄절에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의 안부도 신속, 편리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몇 년 전만해도 우리는 일일이 성탄카드를 손으로 써 보냈었다. 나도 시간에 쫓길 때라도 짬을 내서 최소한 일년에 한번,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 인사를 전해야 할 분들에게 일년을 돌아보는 감사와 새해를 위한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성탄카드를 드렸었다. 그런데 어느새 부터인가 이메일로 받는 카드가 생기더니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서 성탄카드도 거의 카톡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혹시 우편으로 카드가 와도 대부분 아무런 글도 안 적힌 사진카드이거나 조금 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사진 뒤에 짧은 안부를 적어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아무 연락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카톡으로라도 성탄 안부를 전하는 것이 반가울 것이다. 그런데 카톡으로 보내는 카드를 통해서 안부를 보내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는 어렵다.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는 카톡 내용이 어떻게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어린 아이들이 산타할아버지와 사진 찍는 대신 말구유에 누워 계산 예수님하고 사진 찍는 부스가 생긴다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아직도 선물을 준비하기에 늦지 않았습니 다. 오늘도 세일합니다”라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사평을 재촉하는 광고에 마음이 끌리기보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탄절 같은 명절이 되면 마음이 더 힘들어질 우리 곁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기 위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메일: lpyun@apu.edu

담임 목사님 청빙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솔즈베리시에 위치한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는2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제적 250명, 출석 200명으로 자체교회를 소유하고있습니다. 믿음,소망,사랑으로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1. PCUSA 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Div)졸업 하신분
2.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분
3. 목사 안수후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부목사 경력 포함)
4. 이중언어가 가능하신분 (한국어,영어)
5. 미국에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한국어,영어 각1부)
2. 목회비전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3. 설교 2편 (최근 6개월 이내 CD, 동영상, website 주소 제출)
4. 목사안수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5. 추천서 2인(목사님) 반드시 자필 서명
6. 사역교회 주보 (최근 1개월분)
7. Personal Information Form
(Download from : http://www.pcusa.org/resiurce/personal-information-form)

제출서류 마감

1. 제 출 기 한 : 2016년 1월 31일
2. 서류보낼곳 : (우편접수) 29900 Brighton Court Delmar, MD 21875 : IL BAE KIM
3. 문의 : 청빙위원장 : 김일배 장로(전화 : 410-422-9266).
 청 빙 위 원 : 김금화 장로(전화 : 410-430-9288) Email: geumh119@hotmail.com
4.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회 웹사이트:www.skoreanchurch.org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학사,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찬리더십박사

1). 저명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취득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로부터 목사안수 (남, 여) 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필수 있다.
3). 본교는 미국 미조리정부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info@goggu.us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섬과 회복이 있는 기도 동산.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목회서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사건들의 가정법에 대하여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평상시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처,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가장 크고 위대한 날은 예수님이 이 세

상에 다시 오는 날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제일이 많이 말씀하고 있고, 제일 강조되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25절중에 한절 꼴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란 증거입니다. 성경에 32,500개의 언약 가운데, 환난과 재림과 심판을 제외한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 졌다면,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그러면 만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재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가정해 보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들림(휴거) 받게 된다.

만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죽은 성도들이 무덤과 바다와 광야에서 나와 영광스러운 몸, 영체로 놀랍게 변화하여 먼저 부활하고(살전4:16), 온전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

었던 신자들이 부활하자마자 순식간에 변화되어 들림 받아(휴거)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연합하게 됩니다(살전4:17). 물론 이때 큰 난리가 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맞으로 들림 받아 올라가고, 불신자들과 미성숙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남아서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웬일인가 하고 놀라겠지만, 결국 세상은 혼돈 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2.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고, 언젠가 불시에 예고없이, 도적같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큰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

기며 믿지 않던 대다수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재림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크게 놀랄 것입니다. 이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날짜를 정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믿지 아닐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크게 놀라고 두려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3. 구원받을 기회가 다 끝난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고후6:2)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를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일 다시 오시면 회개할 기회도 없고, 믿을 기회도 없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구원 받을 기회도 다 끝나고 맙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가 홍수심판 전에 전도할 때 농담으로 여기고, 코웃음 치고, 조롱했으나,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애걸복걸하며 통사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내일 공중재림하시면 구원 받을 기회는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죽기 전, 살아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망하며 학수고대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미동부 4개주 “교계 갱신과 발전 토론회”

뉴욕교협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인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커네티컷 교협과 목사회 회장들을 초청, 교계 갱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토론회라기보다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은 1)현재 처해있는 교계의 상황, 2)문제점, 3)개선방안, 4)미동부 이단대책위원회, 5)5개주 체육대회로 나눠 순서대로 발표됐다.

참석자는 뉴욕교협 회장 이종명 목사, 뉴욕목사회 회장 김영환 목사, 뉴저지교협회장 이의철 목사, 뉴저지목사회 회장 양춘길 목사, 필라교협회장 안문균 목사, 필라목사회 회장 김정일 목사, 커네티컷교협회장 육영철 목사, 전 커네티컷교협회장 황현조 목사 등과 뉴욕교협의 부회장 김홍석 목사, 총무 박진하 목사, 서기 한준희 목사, 뉴욕목사회 부회장 김상태 목사가 동석했다.

이날 나온 의견들을 요약하면 1)에 대한 의견은 △한인교회성장이 멈추고 감소추세로 위기상황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2)에 대해서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상실 △교계 정치화가 심하다 △리더십의 부재 △성경불신 시대 △기대가 없다 △말만하고 행동으



미동부 4개주 “교계 갱신과 발전 토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로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사회 세속화 영향 △인본주의 △이기주의의 △거룩성의 상실 △희생이 없다 △무임목사가 많다 등이 의견으로 대두됐다.

3)개선점으로 △생활성화를 위한 영적 갱신(영적 대각성, 성경으로 돌아가기)과 전략적 사역(한인을 뛰어넘는 비전, 선교적 연합의 창의적 사역)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자질변화 △지역교회 연합 △목회 초점을 내교회화 아닌 지역에 맞춰야 한다 등의 의견이 언급됐다.

이외에 교회갱신을 주장할 때 피해로 △영적우월감에 의해 이단 대두 △기성교회에 대한 불신 조장 등이 있어왔으므로 자아갱신이 우선돼야 한다. 환골탈퇴의 자세로 나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에 맞춰 “성경으로 돌아가자” 캠페인을 벌여 지역별 연합집회를 갖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오늘 내용을 정리해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4)는 2016년은 뉴욕교협이 맡고 그 다음 필라 순으로 그동안 중지됐던 이단대책위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이종명 목사는 2016년에 2회의 이단대책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5)체육대회는 2016년은 뉴저지 목사회 순서로, 양춘길 목사는 연례에 따라 5월 첫 월요일 뉴저지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통성기도를 한 후 이의철 목사 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운교회)의 기도, 김인경 목사(축복교회 담임)의 메시지, 그리고 채인석 목사(은총선교교회 담임)의 축도로 드렸다.

2부 만찬 후에는 전성천 목사(남서부지방회 회장)의 인도로 개교회 소개 및 전인 회장 채인석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에는 임상근 목사(찬양교회)의 인도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한 모든 목회자 가족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증정했으며, PK들이 함께하여 교제하고 섬기는 시간이 됐다.

<기사제공: 나사렛 남서부지방회>

기도대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15일 오전 11시 한인타운에 위치한 용수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경과보고는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 모임에서부터 대회가 마친 후 가졌던 자체 평가회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헌장취재를 했던 언론사 기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2016년 4월에 열리는 Azusa Now 집회와 11월에 열리는 Line in the Sand(대표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가 주최하는 2016년 다민족기도대회 참여 및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박준호 기자>



YAOLA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주님세운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주민 음악문화로 섬기기

주님세운교회 YAOLA 크리스마스 콘서트

Young ArtistsOrchestra(YAOLA 디렉터 다니엘석 집사)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지난 12월 13일 오후 5시 토랜스에 위치한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열렸다.

콘서트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클래식 곡들, 영화 주제가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함께한 300여 명의 관중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YAOLA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음악문화로 섬기기 위해 주님세운교회에서 후원해 탄생한 오케스트라다. YAOLA는 주님세운교회와 지휘자 다니엘석 집사가 함께 유스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커뮤니티를 위해 2014년 10월에 창단했다.



2015 미주한인재단 전국정기총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우측에서 네번째가 김성웅 전국 총회장)

2016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서 시상

미주한인재단 전국 정기총회, 대상 수상자 결정

2015년도 미주한인재단 전국 정기총회(전국총회장 김성웅)이 16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성웅 회장의 사회로 열린 총회

에선 매년 재단이 선정해 시상하는 대상 수상자를 결정했다. 시상은 내년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중에 거행될 예정이다.

미주한인재단은 매년 1월 13일

의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주최해오고 있다. 2016년은 미주한인이민 113주년 기념으로 각 지회 별로 여러 행사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제15회 애국선열 합동추모식은 2016년 8월 중에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고, 미주한인재단의 발전 방안 및 48개 지역 전국조직 활성화에 대해 결의했다. 다음은 2016년 전국 총회 주최로 열리게 되는 행사일정이다.

△1월 13일(수) 오후 6시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만찬 (Oxford Palace Hotel) △1월 16일(토) 오전 9시 장대한 교수의 차세대 세미나(LA 한국교육원) △1월 28일(목) 오전 11시 미주한인의 날 기념 골프대회(California Country Club) △2월 23일(화)~26일(금) 김소문 화백 미술 전시회 (웨스턴 갤러리).

<기사제공: 미주한인전국재단>



2015 벤추라카운티 연합 성탄감사 찬양예배가 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찬양

2015 벤추라카운티 연합 성탄감사 찬양예배

벤추라카운티 교역자협의회(회장 김민영 목사)는 2015 벤추라카운티 연합성탄감사 찬양예배를 지난 13일 오후 5시 카마리오연합감

리교회(담임 이상영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상영 목사 사회와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 이정구 목사(벤추라카

운티장로교회)가 기도를, 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 찬양팀이 은혜의 찬양을, 주님의 교회(담임 오정택 목사)가 기쁨의 찬양을 그리고 벤추라감리교회가 능력의 찬양을 드렸으며 김민영 목사(벤추라감리교회 담임)가 ‘평강의 왕이라!’(사9: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씨미밸리한인교회(담임 반채근 목사)가 평화의 찬양을 드렸으며 벤추라교협 목회자 부부 찬양단이 봉헌 특송을 했으며 승광철 목사(새생명교회)가 봉헌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새생명교회 찬양팀이 드림의 찬양을, 카마리오제일자요교회(담임 조인 목사)가 영광의 찬양을 불렀다.

이날 예배는 참석자들이 다함께 ‘오 거룩한 밤’을 부른 뒤 남재현 목사(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벤추라카운티 교역자협의회>



나사렛 남서부지방회 송년 모임 및 성탄 뱅킷이 새로남교회에서 열렸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제로 교제

나사렛 남서부지방회 송년 모임 및 성탄 뱅킷

남서부지방회 송년 모임 및 성탄 축하 뱅킷이 지난 13일 오후 5시 새로남교회(담임 신반석 목사)에서

80여명의 목회자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1부 예배는 이봉하 목사(아름다



2015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경과보고가 용수산 식당에서 열렸다

2015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경과보고

2016년 4월, 11월 다민족기도대회 협력발표

지난 11월 29일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2015 다민족연합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화 신년산상기도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박사) 총동문화(회장 허윤준 목사)가 2016년 1월 4일(월)일부터 5일(화)까지 이틀간 신년산상기도회를 갖는다. 강사는 이규본 목사, 손한권 목사, 이영상 목사, 이종원 목사. 장소는 라마나웃 기도원이며, 회비는 숙식 포함 일인당 40달러. 급식자는 20달러다. 4일(월) 오전 10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출발한다.

▲문의: (917)733-7387, 526-1248, 386-8852

자녀양육 강사교육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자녀양육 강사교육이 2016년 1월 18일(월)과 19일(화) 양일간 뉴저지 본원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일인당 280달러이며 참가대상자는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 평신도, 사역자 등 차세대 양육에 관심있는 자.

▲문의: (201)242-4424



프라미스교회 설립40주년 감사예배 오프닝공연에서 PIF가 공연하고 있다.

“축복과 기적의 40년...나눔과 섬김의 40년으로” 프라미스교회, 설립40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만찬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기념만찬을 열었다.

지난 20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열린 기념예배와 감사예배 및 만찬 행사에서 “축복과 기적의 40년을 넘어 나눔과 섬김의 40년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향후 40년 프라미스교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오후 4시에 열린 감사예배에서는 허연행 수석 부목사가 기도했으며, 설교는 조지 우드 목사(세계AG 총회장)이 했다.

인사 및 감사소개에 나선 김남수 목사는 “오천명의 교인과 20년, 30년, 40년째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오직 감사하는 마음과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 돌리며 이 축제에 기쁘게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예배에서는 20년 근속 149가족, 30년 근속 159가족, 40년 근속 10가족에게 근속자상을 전달했다.

김남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한 조지 우드 목사는 “기억하라”(마

16: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게 여러 곳의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많았지만 프라미스교회와 같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보지 못했다. 우리 교단의 자랑스런 교회”라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축사는 루이스 부시 박사, 이종명 뉴욕교협회장, 최정규 목사(인투교회)가 했으며 정영효 목사(AG한국총회장)가 축도했다.

한편 오전 예배에서는 김장환 목사가 설교했으며 장로은퇴식(5명)과 교회역사 동영상, 영상축사 등이 있었다.

프라미스교회는 1975년 맨해튼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후 1977년 김남수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1992년에는 퀸즈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주일예배를 드렸으며, 2004년에는 현재 본당에 입당했다. 2009년에는 ‘순복음뉴욕교회’에서 ‘프라미스교회’로 교회이름을 바꾸고 4/14원도우를 시작했다. 2012년에는 뉴저지 프라미스교회 병합 감사예배를 드렸다.

(유원정 기자)



한인노숙인 쉼터 나눔의 집 쉼터 기금 모금 디너콘서트에서 CBSN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노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잠자리” 나눔의 집 쉼터 기금모금 디너콘서트

한인노숙인 쉼터 나눔의 집 쉼터 기금 모금 디너콘서트가 지난 15일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뉴욕기독교방송(사장 문석진 목사)이 주관하고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주최한 디너콘서트는 장경아 CBSN방송팀장 사회로 뉴욕필그림선교부흥단이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문석진 목사의 환영사 후 그레이스뎀 뉴욕주 하원의원과 토비안스타비스키 뉴욕주의회 상원의원의 영상인사, 정승진 민권센터이사와 이종명 뉴욕교협회장, 피터구 뉴욕시의원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 박성원 목사가 나눔의집 사역을 소개하고 홍보영상이 상영됐으며 후원약정의 시간이 있는 뒤 장석진 부이사장의 기도 후 만찬에 들어갔다.

문석진 목사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노숙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며, “갑작스런 소나기를 피

할 수 있는 처마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박성원 목사는 “노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리”라며, 그동안 나눔의집을 거쳐 재활의 삶을 살고 있는 탈 노숙인들을 소개했다.

박 목사는 “오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다”고 말하고, “완전 무료인 나눔의 집이 여성 쉼터와 남성 쉼터가 따로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 천상에 크레딧을 쌓는 일을 하자”고 말했다.

콘서트에는 CBSN합창단과 김창숙 명창, 크리스티나 리, 랜디 브룩스의 노래로 이어져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코코 크리스마스 공연

동부소식

“기도하며 섬기는 목사회” 내걸고 출범

뉴욕목사회 제 44회기 이취임식...성탄축하예배 함께

뉴욕목사회 제 44회기가 “기도하며 섬기는 목사회” 표어를 내걸고 출범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성탄축하예배와 함께 드린 이취임식에서 회장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 담임)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만큼 준비도 많이 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일정에 앞서 먼저 기도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내실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임하는 이만호 목사는 “지난 회기 협력해주신 선배, 임신행위, 단체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43회기 일년 동안 의미 있고, 가치와 보람, 행복했다. 열정으로 발로 뛰는 김영환 회장의 44회기가 좋은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부 성탄감사예배는 부회장 김상태 목사 사회로 기도 허윤준 목사, 성경봉독 안경순 목사, 특송 뉴욕목



뉴욕목사회 제 44회기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사합창단, 설교 장석진 목사, 헌금송 여성목회자총창단, 헌금기도 조병광 목사, 축도 김승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석진 목사는 “지도자의 영성이 사역의 인프라를 결정한다”(민 27:15-2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영적 리더의 자격은 첫째 영성 있는 자, 둘째 지혜의 신이 충만한 자-도덕적 정직과 성실, 영적 성결이 있어야 한다. 셋째 섬김을 중시하는 사역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조화시켜야 한다”며, “모두 협력해서 아름다운 44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

부 이취임식은 총무 김진화 목사 사회로 정순원 목사의 시무기도, 이임



뉴욕교협 제 1차 임신행위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연중사업계획, 예산안 보고

뉴욕교협 제 1차 임신행위원회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지난 17일 제 1차 임신행위원회를 열고 제 42회기 2016년 일정과 수입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종명 목사 사회로 시작된 회무는 김재권 목사 기도 후, 회원점명(한준희 서기), 42회기 사업 및 행사 계획 보고(박진하 총무), 2016년 예산안 보고(이대연 재정분과위원장), 주소록 회원정리(한준희 서기)의 순서로 진행됐다.

42회기 교협의 2016년 연중사업 계획 및 행사주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임신행위 2차 모임: 3월 17일(목) △3차 모임: 6월 13일 △4차 모임: 9월 20일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 1월 25일(월) 오후 7시 대동연회장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3월 27일(주) △연합 영적각성대회 및 세미나: 4월 1일(금)-3일(주) △청소년 농구대회: 4월중 △교협 체육대회: 5월 30일 △하렐루야대회: 6월 24일(금)-26일(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방지 법제화 논의: 7월 중 △총회: 10월 24일(월). △교협주소록 회원정리는 제외 대상 73개 교회를 발표했으며 이들은 최근 6년간 회비 미납 및 불참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다시 한번 연락해 참여를 초대한 독려하는 한편, 법규위원회를 맡겨 최종 정리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논의키로 결의했다. 이로써 이번 주소록에는 그대로 삽입되며 △주소록 발

사 이만호 목사가 이임사를, 추가이광선 집사, 김영환 목사가 취임사를 하고, 전임회장단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축사는 5명으로 이종명 목사, 김종덕 목사, 황정일 목사, 허길 목사, 송병기 목사가 했으며 박희소 목사의 격려사 박희소 목사 후서기 유태웅 목사가 광고하고 장경혜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44회기 뉴욕목사회는 대형 내각을 이뤘다.

7명의 임원 외에 2명의 협동총무를 임원단에 포함시켜 총 9명, 기획위원 5명, 협동총무 50명, 분과위원 43명, 특별분과위원장 26명, 자문위원으로 27명이 위촉됐다. 이로써 160명이 임신행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으며 이외에 감사 3명이 있다.

(유원정 기자)

간은 신년하례 때 출간되도록 한다.

2016년 수입 지출 예산안은 총 345,0074달러로 지난해보다 1만5천 달러가 감소됐다.

이날 예산과 관련된 논의된 사항은 >청소년하렐루야 지원금을 7,5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하며 2,500달러는 예비비에서 충당한다 >예산 중 기타가 8%로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므로 그 %를 내리도록 한다 >이영훈 목사의 지원금 4만 달러 중 2만5천달러는 CD로, 7천 달러를 3층 카페오픈 비용으로, 8천 달러는 회기 말에 이월금으로 상환한다.

이날 또 보고사항으로 △교협 웹사이트 일시 중지 △기타 사업 및 행사에 관한 후일, 주관, 주최는 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보고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주효식 목사 인도로 기도 조병광 목사, 설교 이승재 목사, 동성기도, 광고 박진하 목사, 축도 신헌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승재 목사는 “누군가에서 오심은”(요3:16-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둘째,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셋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라며, “품은 교협이 되고, 넉넉한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코코장애인 위한 이노비크리스마스 음악회

이노비(EnoB: Innovative Bridge, 대표: 강태욱)가 지난 19일, 코코장애인센터를 찾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연 후에는 코코식구들이 직접 만든 예쁜 카드를 감사의 선물로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코코의 전선덕 회장은 “5분을 가만히 못 앉아있는 아이들이 공연을 앉아서 즐기는 게 놀란다. 벌써 9년째 봉사해주고 있는 이노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오프 브로드웨이 무대서 활동 중인 김수진씨가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뮤지컬 배우 김소향과 브로드웨이에서 활동 중인 글렌 노스와 황주빈, 크리스티아 에이트 램피와 드림 척디언이 참여했다.

(기사제공:이노비)

<7면에서 계속>

오리겐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독교론은 후대 교회에 지대한 혼동을 주기도 하였다. 그가 주장한 성자의 종속설 때문이다. 훗날 기독교론 논쟁이 벌어질 때에 아리우스와 같이 정통신학 도전하는 자들이 고집하던 사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는 신학자들의 의견도 있다. 종속설이라 함은,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다는 것이다. 그의 논지는 분명하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으나, 성부는 기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성자는 성부보다 그 위치가 낮은 분이다.

그러나 오리겐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훗날 성부만이 영원하시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리겐은 성부의 우월 또는 성자의 열등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리겐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속 또는 복종이 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있다. 신성을 가진 그였지만, 성부에게 죽음을 수용하기까지 복종한 것은 인간들에게 복종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복종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시대의 끝에

도 만물을 아버지께 복종케 하시며... 만물과 함께 그리고 만물 안에서 아버지께 친히 복종하셨다고 한다”(원리에 대하여, III.v.6).

오리겐의 종속론을 거론하면서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은 종속이란 개념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부와 본질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혼 합되지 않은 분이요. 그러나 우리 구주는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의 화목제물이요 첫 열매로서 보냄을 받으셨을 때, 많은 자를 때문에 많은 것이 되셨다”(요한복음 주석, 1.20[22]). 또한 오리겐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부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종속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아버지의 감추인 것들을 선포하신다는 뜻에서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말이 정신이 파악한 것의 전달자이듯, 어떠한 피조물도 안내자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를 아시고, 자기가 아는 아버지를 계시하시기 때문이다”(요한복음 주석, 1.37-38[42]).

2) 성경이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특정한 구절을 정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정통 기독교론이 세워진 것은 4세기의 일이다. 이런 결과는 성경에 근

거하여 그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정립한 초대 교부들의 노력의 열매이기도 하다.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거부한다.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위대한 종교를 세우며 진리를 가르친 훌륭한 선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실재성을 거부한다. 그가 행하신 기적들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과 나이가서는 그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한다. 기독교 진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을 제외하고 무엇을 기초로 한다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담고 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 기독교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인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는 낫추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이 신학의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집약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마음이 담겨진 감사와 찬송이다.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자. 기쁨과 즐거움이 더할 것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계속)

책 읽으며 도전 받아...하나님께 더 가까이

세계기독언론협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세계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가 주최한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21일 오전 11시 JJ컨벤션호텔에서 열렸다.

공모전 우수상 수상자 유혜경 자매(월드미션대학교)는 “2년 전부터 하나님 믿음이 살게 하신 이끄심이 있었다. 교회집회를 준비하면서 독후감 공모전 소식을 접했다”며, “하나님께서 제안에 생명으로 함께해주시고 날마다 함께 살아가 주셨다. 믿음의 지인들과 글을 주고 받으면서 글을 써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글을 쓸 때 기도하면서 썼는데 마감 3분전에 원고를 보낼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걸음을 걷게 될 지 모르겠지만 글로 되어진 성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가 주최한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경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듯 글로써 표현되어지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장려상 수상자 이승순 사모(텍사스 그린빌한인침례교회)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뽑아준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책을 읽으며 많은 도전을 받았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를 위해 보낼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하게 됐다. 앞으로 글을 많이 읽고 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워클리 발행인)의 사회로 시작된 시상식은 정요한 목사(크리스천헤럴드 사장)가 개회 기도했으며 전인철 목사(오렌지말씀사 사장)가 전도서 12장 11-12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어 서인실 국장(크리스찬투데이)의 경과보고 후 김신웅 장로(시인, 국제펜클럽회원, 전 기독교민영회 회장 및 이사장)과 백승철 목사(시인, 예포도예술인협회 대표)가 심사평을 했으며, 시상 및 소감발표로 이어졌다.

이번 공모전은 총 14명이 응모했으며 응모자는 캘리포니아 7명, 뉴욕 3명, 일리노이 1명, 위싱턴 1명, 텍사스 1명이다. 이날 시상식은 서종천 목사(크리스찬투데이 발행인)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LA카운티아동국 공동주최 위탁아동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위탁아동을 위한 크리스마스파티

한인가정상담소-LA카운티 아동국 공동주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2015년의 연말을 맞이하며 LA 카운티 아동국 공동주최 위탁아동을 위한 크리스마스파티를 지난 18일 오후 12시30분 Covina에 위치한 LA카운티 아동보호국 근처의 Masonic Homes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봉사자들이 나와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쓰고 선물을 나눠주는 등 80여명의 한인/아시안 위탁아동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LA아동보호국(DCFS) 소설위커 왕소언 씨는 “소외되고 학대받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기위해 봉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사피서픽대학교 소설위커 석사과정(MSW) 유니스한 씨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따뜻한 마음으로 선물 나눠주기 위해 왔다”며, “고등학생시절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해왔다. 봉사를 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같아 좋았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사랑의 크리스마스 선물 모집을

시작했고 한인사회의 관심과 사랑의 지원으로 위탁 아동들이 건넨 희망(wish)리스트에 따라 한인가정상담소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구매 및 포장으로 준비한 선물들을 전달했다.

40여명의 아동보호국 관계자 및 소설위커, 한인가정상담소 직원 및 봉사 단체인 Gifts2Korea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위탁 시스템에 있는 한인 68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했으며, 이번 선물과 파티를 위해 총 1만9천달러의 후원을 받았다.

(박준호 기자)



더텐트 파킹랏콘서트 2주년 기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가주영어학교에서 열렸다

가족같은 느낌...크리스마스 콘서트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2주년 기념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한 파킹랏 콘서트가 2주년을 맞아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19일 오후 7시 콘서트 장소인 가주영어학교 파킹랏에서 열렸다.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콘서트는 2015 CCM루키 동상수상자 정명훈 형제를 비롯, 정다히 자매(새생명 비전교회), 박승환 형제(익투스밴드 보컬), 이민우 전도사, 바이올리스트 김잔양 자매(나침반교회), 그리고 건반연주자 데이비트 목사가 출연해 캐롤과 팝, 가요, CCM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정다히 자매는 “파킹랏이란 공간이 어떤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와서 보니 따스한 분위기에 공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함께 출연했던 분들 역시 출중한 실력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공연을 보러 오신 관객들의 모습이 가족 같은 느낌을 받게 돼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 뜻 잘 펼쳐가길

요셉선교교회 이전 감사예배

요셉선교교회(담임 정상호 목사)이전 감사예배가 20일 오후 3시에 거행됐다.

정상호牧사는 “세 번째 장소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전 감사예배를 하게 됐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배를 드려왔다. 보내주시는 사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주님의

뜻이 본 교회를 통해 펼쳐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 LA노회 장 천상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전 감사예배는 정상호 목사(UCS, United Christian Seminary교목)가 기도했으며 오영분 전도사(요셉선교교회)가 성경봉독을, 최아브라함 목사(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가 ‘박해와 기쁨’(행8: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UCS 재학생들이 축가를 불렀으며 강양규 목사(UCS주임교수)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정상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요셉선교교회는 2010년 6월 24일 James M. Wood에서 개척해 2010년 9월 23일 Kingsley Dr로 이전했으며 최근 현재 장소인 927 S. Bonnie Brea St, LA로 이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OC평신도연합회 회장이임 및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 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 집사) 회장 이임 및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2월 26일(토)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 웨딩홀에서 열린다.

▲문의: (213)500-5449, (714)501-5479

사랑의빛선교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제3대 담임인 윤대혁 목사 위임예배를 12월 27일(주) 예배시간(1-3부)에 갖는다.

▲문의: (626)744-9191

글로벌선교교회 신년비전집회

글로벌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는 새해를 비전과 은혜의 한해로 세우기 위한 ‘신년비전집회’를 ‘블레스 2016’이라는 주제로 1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개최한다. 일정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4일(월): 이상훈 목사(풀러신학교 교수) △5일(화): 소리엘 지명현 목사(나성영락교회) △6일(수): 오석환 목사(꿈을 이루는 재단 대표) △7일(목):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8일(금): 이지선 자매(‘지선아 사랑해’ 저자) △9일 김지성 목사. 시간은 매일 오후 8시.

▲문의: (909)396-4441

나침반교회 2016년 신년축복새벽기도회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2016년 신년축복새벽기도회를 ‘교회여,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주제로 1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갖는다. 시간은 월-금 오전 5시30분, 토 오전 6시30분.

▲문의: (562)691-0691

라팔마연합감리교회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는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1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오전 5시30분에 갖는다.

▲문의: (714)226-0300

충현선교교회 신년부흥회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는 신년부흥회를 1월7일(목)부터 10일(주일)까지 갖는다. 강사는 주종홍 케냐 선교사

▲ 문의: (818)549-9191

선한목자교회 신년특별저녁집회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는 신년특별저녁집회를 1월5일(화)부터 8일(금)까지 저녁 8시에 개최한다. 일정과 강사는 5일(화)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6일(수) 이재학 목사(디모데성경연구원), 7일(목) 노장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8일(금)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이다.

▲ 문의: (909)591-6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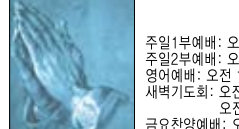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모집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사)는 온라인 학위 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목회학 박사과정, 목회학 석사, 신학석사, 기독교상담학, 성서학 등이다. 장학금 혜택과 관련상담도 가능.

▲ 문의: (213)388-1855



요셉선교교회 이전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헌금헌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org Tel: (714)321-0991, Fax: (714)3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윤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회: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11:00 EM: 대만: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o.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오전 11:20 월요일 예배: 오후 11:20 영아원 (김소·KDC, 김명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9: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lendale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g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수요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대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월요일 기도회: 오전 5:45(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영아예배: 오전 11:00 대학영아예배: 오후 1:00 영아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08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ea St, L.A. CA 90006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 기도회: 오후 3:00(청년) 수요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미션전반)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아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청년)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토요일성경집회: 3:00(월) 2:40(금) www.gracemci.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온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림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온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아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pc.org Tel: 310-370-5855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어둡고 낮은 곳 이웃 예수 이름으로 보듬자”

교계, 2015 성탄 메시지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20일 대표회장, 교단장 명의로 세상의 어둡고 낮은 곳에 있는 이웃을 보듬자는 취지의 성탄 메시지를 일제히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성탄을 맞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동포와 온 세계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한기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윤유와 겸손, 섬김과 낮아짐, 희생이었다”며 “예수님께서 보으신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선행 사마리아인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품고 나누는 성탄절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지구촌 곳곳의 어둠을 밝히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틈바구니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회 작은 자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백남선 목사)는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었다”며 “성탄절을 맞이하여 죄악의 어둠과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구원의 빛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교단도 각각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복음의 참뜻을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은 만민의 품으로 하루 묵을 방을 찾는 가족에게 냉정한 도시였다”며 “대한민국이 베들레헴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이주 노동자와 북한에서 들어온 탈북자를 냉정하게 배척하는 나라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예장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며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뜻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더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목회장 전용재 목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로 우리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이끄는 목사”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로운 성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 배울수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곤 한다”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다는 것”이라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평안을 비롯한 북한 곳곳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과 할렐루야 소리가 울리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한국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삭 박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마1:18-24)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박사는 “오늘이 성탄예배가 우리들만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북녘 땅에도 울려 퍼질 성탄의 메시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 실황은 오는 20일 주일과 성탄절인 25일에 단파 7615㎱와 중파 1566㎱를 통해 북한 전역으로 송신된다. 스마트폰 앱 ‘괭아의소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측은 자유 없는 북한주민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 측은 등탑이 군사적 목적의 대북심리전에 활용됐으며 남북갈등, 남남갈등 및 주민공포를 유발한다고 맞서었다.

교회의 전 역사를 통찰하게 하며 한국교회가 나아갈 바를 생각하게 한다. 특히 해방 전후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전통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한국장로교회가 세계 개척교회의 유산을 역사적·신학적으로 계승해왔음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장로교회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할랄식품 무슬림이 꼭 먹어야 하는 것 아냐”

‘할랄식품조성반대 특별기도회’서 이만석 목사 강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슬람대책위원회 이만석(한국이란인교회) 목사는 17일 전북 익산 이리성경교회(이을의 목사)에서 열린 ‘할랄 식품 조성 반대 특별기도회’에 참석, 이슬람과 할랄 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강연했다.

이 박사는 “이슬람에 대해 속지 말고 악한 영을 구별하라”면서 “무슬림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이 같다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전혀 다른 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박사는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선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 저주받은 자로 이야기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슬람은 원래 ‘평화의 종교’이며 이슬람국가(IS)는 일부 극단주의자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속지 말라”고 전했다. 그는 “IS가 이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감지찌개와 감치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한국 교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할랄 식품 테마단지가 익산에 조성 중인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이슬람은 전 세계를 알라 앞에 무릎 꿇게 하려는 목

적을 갖고 있다”며 “할랄은 음식을 통해 세상을 이슬람의 통치 아래 두려는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최근 KBS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할랄 식품을 팔아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식으로 방송했으나 여기에도 속지 말라”며 “KBS가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고 제목을 달았으나 인구도 1억~2억 명이 적을 뿐더러 그 내용도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방송에선 모든 무슬림이 할랄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할랄 식품에 대한 고정 수요가 엄청나다고 전해졌지만 무슬림은 품질만 좋고 맛만 좋으면 뭐든 다 먹는다”면서 “본래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란에도 할랄 음식이 아니어도 모르고 먹으면 괜찮다고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할랄 식당이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그 전에 있던 무슬림은 어떻게 살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박사는 “우리는 무슬림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이 참 자유를 누리도록 전도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랄 단지 못 막으면 한국 이슬람화 교두보 된다”

할랄식품 테마단지 조성 반대 특별기도회

전북기독교연합회와 익산시기독교연합회 회원 등이 17일 오후 익산시청 앞에서 특별기도회를 열고 정부에 익산 할랄 식품 테마단지 조성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기독교연합회(회장 김상기 목사)와 전북 익산시기독교연합회(회장 문영만 목사)는 17일 오후 2시 익산시청 앞에서 ‘할랄식품 반대 특별기도회’를 열고 “정부는 ‘익산 할랄식품테마단지’ 조성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연합회는 “우리는 국가식품물류센터가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라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1월 프랑스에서 대규모 테러가 일어난 것을 지켜보고, 이 사건만이 아니라 수많은 테러 사건의 90%가 무슬림에 의해 일어나 지구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한국 이슬람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할랄 식품 테마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무슬림의 포

교전략에 일조하고 있는 점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멈출 때까지 전국의 단체들과 함께 연대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기도회에는 전북지역 목회자와 교인,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할랄 식품 테마단지 조성 반대’ ‘유럽도 실패하고 포기한 무슬림 도입정책,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가’ ‘국민혈세로 이슬람 지열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오후 3시30분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 중인 테마단지 등에서 특별기도회를 열었다. 이 기도회는 임제영 전북기독교연론인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북목회자산상기도회 소속 최에스터 박사는 대표기도를 통해 “할랄 식품 테마 단지 조성을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는 정부 지도자들의 생각이 변화돼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이슬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할랄 식품 단지 조성 반대를 위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부전선 애기봉 등탑 재건립 둘러싼 갈등 봉합

교계, 남북 당국에 평화등탑 동시 점등 제안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 십자가 등탑 점등과 관련, 갈등을 빚어온 진보와 보수 교계가 21일 남북 당국에 남북 평화등탑 동시 점등을 제안했다. 올해 성탄절에는 애기봉 점등행사를 ‘애기봉 평화기도회’로 대체해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군(軍)이 안전을 이유로 철거한 애기봉 등탑의 재점등을 추진해온 기독교당(대표 박두식 목사)과 점등에 반대해온 기독교평화행동동자단(공동운영위원 이적 최재봉 김봉은 목사), 민통선평화교회, 전단산포맷애기봉등탑반대공동대책위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진보와 보수의 하나 됨을 추구하고 지역민의 근심을 덜어주고, 남북화합을 도모하고, 남북평화와 상생의 애기봉 평화등탑으로 전환시켜나가기 위해 큰 틀의 합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제안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북쪽에 십자가 등탑을 세우고, 남한은 남쪽에 십자가 등탑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보 교계와 협의의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발 165m 애기봉 정상에 처음 불을 밝힌 것은 1954년이다. 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애기봉에 등탑이 세워졌지만 지난해 철거됐다. 애기봉 등탑 불빛은 20여km 떨어진 개성시내에서도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은 “괴뢰들의 반 공화국 심리전”이라며 반발해왔다.

애기봉 등탑의 점등에 찬성하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총서 발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총서 발간 기사의 사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장 이덕주 교수)는 최근 ‘해방 전후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발간했다. 이상규 고신대교수가 18편의 논문을 엮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스물두 번째 연구총서로 펴냈다.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한국장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ae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현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운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637-4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EAST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전 8: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화요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edchurch.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1:30 수요 안침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대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님: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남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페인어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8:00(화-토) 새벽기도: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당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성경공부: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rk@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I-SAO PAULCE-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Ó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우. 주. 중. 고등학생: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목 사네쉬니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mk@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ó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고난의 신학: 용기에 대한 묵상 (4)

이승현 박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보상 없는 신앙

이웃을 저버리지 않는 경의

잠언 1장 7절은 지혜의 근본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영어로는 fear이라고 번역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는 **יָרָא**이다. 근본적으로 경의는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과 연관돼 있다. 두려움 또는 공포는 인간생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어야 하는가(출5:2)”라고 반박한다. 반면에 모세는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현현을 접하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경험한다. 그리고 바로의 절대적인 권력에 대항해서 야훼의 위대하신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게 된다.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 대한

반응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움이다. 천하의 의인인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 소개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컸음을 본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인생의 고난을 예측할 수 있으며 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욥은 그가 누리고 있던 물질과 자식의 축복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본능적

이러한 욥의 상황은 욥의 친구들마저도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6:21).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의는 욥이 당하는 큰 고난을 보고 공포로 바뀌게 된다. 그들은 이 공포 때문에 욥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며 그의 하는 말도 귀담아 듣기를 힘들어 한다. 욥이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위에서 말한 싸움 또는 도주하는 반응을 그들 마음속에 일으키게 된다. 절친한 믿음의 친구 욥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들은 욥에게 하나님의 대한 경의를 되찾으라고 충고한다(4:6). 그러나 욥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의는 이웃 또는 친구에 대한 신실함(히브리어로 **헤세드**)을 동반한다고 말한다(6:14).*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이 두려워서 고통 받는 이웃을 멀리하는 것은 진정한 경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고난아래 있는 형제자매와

고난 두려워 고통 받는 이웃 멀리하는 것은 진정한 경의 아니야 불안한 상황은 성도에겐 하나님 경외심으로 극복해야 할 시기

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 반응이다. 인간이 두려움이 없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되고 위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운동선수들이 연습 때보다 실전에 더 강인하고 뛰어난 운동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이 이유에 있다. 눈앞에 보이는 도전 또는 피부로 느끼는 위협은 우리 몸에 있는 자동반사신경을 유발시켜 잠재해 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한다.

위험을 극복하거나 피하려하는 우리의 생존본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조절하기 힘든 즉각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싸움 혹은 도주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생존본능의 감정과 하나님의 경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였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주라는 모세와 아론의 메시지에 그는 주 하나님(야훼)을 알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하였다. 바로는 “내가 야훼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의 말을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애굽인을 죽이고 바로의 복수가 두려워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또 다른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현현의 체험은 이러한 인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것이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져온 사건이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대항한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참혹한 결과가 왔는지 보고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임을 믿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출 14:31).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거룩하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게 한 것이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본능적인 투쟁 도주 반응은 마비되며 온전히 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주의 전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도 떠날 수가 없다는 시편 139편의 저자의 말처럼 주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무의미한

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피부병마저 앓게 되자 자신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한 것이 결국 왔다고 말한다(욥2:25-26). 그리고 모든 세상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가 한 번도 평안하게 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는 인생의 역경이 악인뿐만 아닌 의인에게도 다가옴을 인정하였다(욥9:23).

질병이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가? 교통사고가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가? 가난이 어떻게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삶이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에 욥은 만반에 준비를 하고 고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결벽증에 가까우리만큼 자기 주위를 살폈고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 그러나 재앙은 욥에게도 다가왔다. 보기만 하고 듣기만 했던 인생의 고난들이 그의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닥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의는 공포로 바뀌었다(6:4). 자신이 결백할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고 말한다. 그의 공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느끼는 무서움이였다. 바로나, 애굽인들에게 왔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욥에게도 왔기 때문이다.

같이 서있어 주는 것이 참된 경의라는 것이다. 그 고난이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비극적인 총격사건들은 우리에게 많은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비난들과 대책방들이 논해지고 있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꾸만 시어져가는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베푸는 헤세드가 진정한 경의임을 기억해야하겠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다. 저자는 공동번역과 NRSV를 따라서 해석하였지만 개역개정에는 “고통 받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버릴지라도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는다”라고 번역한다. 후자를 따른다면 이것은 더 극적인 표현이다. 진정한 친구는 자신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자리에 서서 자신을 정죄하기보다는 친절과 동정을 베풀어야한다고 욥이 주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 james.lee@itsla.edu

본사 방문

“실추된 목회자 기본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남가주한인목사회 49대 회장으로 취임한 엄규서 목사가 16일 오후 LA 본사를 방문해 회장 취임식에 관련 소식과 함께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비췄다.

“실추된 목회자들의 권위와 도덕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입을 연 엄규서 목사는 “일부 부도덕한 목회자들이 있음을 부인하진 않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언론에서 사실보다 더 크게 확대돼 보도되는 일도 간혹 있다. 이러한 때 세간에서는 다 그런 줄 안다.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도 언론이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보도에 밀려 빛도 없이 헛신하는 신실한 이들의 미담은 묻혀 버리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그러나 소수의 정치 목사들의 통제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음을 시인한다. 부족하지만 선한 일을 도모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의 변화된 모습이 있는냐는 질문에, “조금 우스울 수 있으나 우리는 세 가지 세칙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회의도중 인성을 높이거나 개인 신상을 공격하지 말 것 △형질을 부리거나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면 무조건 정회하기로 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사태를 유발해서 3회 이상 정회가 되면 그 사람은 아웃하기로 했다”며 웃는다.

2016년 남가주한인목사회는 많은 사역을 구상하고 있지만 그 중에 △무료 결혼식 △3.1절 기념 음악회 △체육대회를 큰 사업으로 꼽고 있다.

“무료결혼식은 합동결혼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엄 목사는 “가정이 건 강해야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건강하지 않겠느냐?” 반문하며, “결혼식을 하고 사는 가정과 그냥 동거하는 가정을 볼 때 위기가 닥치면 동거하는 가정이 더 쉽게 파국을 맞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추천하려고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무료 결혼식은 합동결혼식이 아니라 꽃집이나 웨딩샴의 후원을 받아 토요일과 주일 오후를 이용해 시간대별로 결혼식을 올려줄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영사관과 한인회의 연대 사업으로 확정해 4월, 5월 가정의 달을 즈음 해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3.1절 기념음악회를 갖고 이를 기해 교역자 세미나와 사모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누구에게나 교육이 필요하지만 목회자들도 교육이 필요하기에 회의진행법 교육 등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말씀 위에 나를 비취 보아서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는 목사들이 모여 실추된 도덕성 회복에 전념하고 싶다는 것이 한해를 시작하는 회장의 소망이며 각오라고 들려준다.

13일 이취임식 400여명 참석 성황

한편 지난 13일 아가페선교교회에서 진행된 남가주한인목사회 제 49대 회장단 이취임식은 400여명이 참석하는 대 성황을 이루었다. 수석부회장 김종용 목사 사회, 감관진 목사 기도, Don Dewey 목사가 누가복음 2장 8절-14절을 본문으로 ‘Joy to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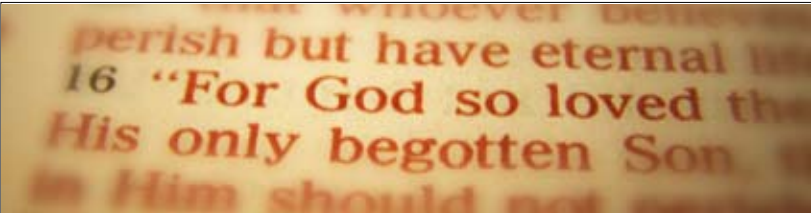
이임하는 백지영 전 회장은 “남가주한인목사회 48년 역사에 첫 여성 회장으로 활동했다. 역대 회장들 앞에서 실망 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왔다”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백지영 목사와 김재권 장로에게 공로패, 엄규서 목사와 알렉스양 이사장, 김종용 목사에게 취임패와 지회 회기동안 수고한 임역원들에게 감사패, 임명패를 수여했으며, 특히 엄규서 목사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지도자 봉사상이 전달됐다.

(이성자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Dr., Las Vegas, NV 89146	덴버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DKoreanchurch.com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경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밴엘교회  담임목사: 김경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종교개혁주일: 오전 10시, [한어] 오후 11시 유지, 유년노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215)529-0900 / 0998(팩스결함)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n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갑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영아찬양: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전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전도일: 오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전일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영아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복음서 이야기 (5)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교 선교학교수)

제 5화 사도 요한

1. 요한복음, 요한1.2,3서. 요한 계시록의 저자, AD98년 자연사
2. 우리의 아들(“보아너게”. 사 마리아 성에 하늘의 불을 내려 천 벌을 주장함 눅9: 45-61.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최측근에 앉

- 제자.
6.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특히 다른 3복음서에 비해 요한복음의 특징, 변화산에서 주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함).
7.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재위

벌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요한계 시록에 기록된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예언은 제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Patmos, Harper’s Bible Dictionary, Harper & Row, San Francisco, 1985, P.755).

8.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며, “이는 네 어머니라”고 하심(요19: 25-27).



엘 그레코의 사도요한 초상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우리의 아들, 예루살렘교회의 기둥

- 음. 행2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솔로몬 행각에서 앉은뱅이를 고침. 야망, 급한 성격이 노년에는 사랑, 온유, 겸손으로 성숙됨: 요 1, 2, 3서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요 1서 4:7)
3.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요한복음에서만 이 표현이 5차례 기록됨).
4. 고향, 부모, 형제(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아버지 세베데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생활).
5.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 기간 AD81~96) 통치 때, 그리스 남쪽 지중해 바트섬(Patmos)으로 귀양감. 그 당시 바트섬은 로마제국의 중범죄수, 노예들의 최종 유배지, 채석장 노역으로 옥살이를 함. 독종들이 우글거려 거의 생지옥과 같은 곳.
- 예일대 신학부 교수, Adela Yarbro Collins는 “로마제국 내에서 주술이나 점성술은 법으로 금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적 예언도 주술이나 점성술의 한 형태로 보아 처



9. 요한복음 21장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 7명의 어부에 포함됨.
-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봄(요21:7).
10. 서기 98년에 에베소에서 자연사로 죽었다고 전해짐(그 당시 순교는 영웅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짐. 동료 제자들은 모두 장렬한 순교로 생을 마쳤지만, 자신은 마리아를 돌보고, 밧모섬에서 귀양생활 하느라 순교할 기회가 없었음).
11.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상세하게 묘사(요2-4장).
12.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 기도를 상세하게 기록(요13-17장).
13.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incarnation)을 요한복음 1장처럼 적절하게 묘사한 복음서는 없다. Carne(히스패닉 슈퍼마켓에 가보면 Carne=정육부, 라틴어로 meat, flesh) In+Carne=육체 안으로.
14. Implication
 - a. 진리를 소중하게 여김
 - b. 겸손과 은혜(humility and grace)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냄.
 - c. 요한계시록-말세에 살아가

이메일: parkss@grace.edu

(6면에서 계속)

6. 미 유권자들은 핵심 쟁점들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후보를 원한다.
- 10명 중 7명의 미국인들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특정한 쟁점들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후보를 선출하는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76%), 건강보험(65%), 이민정책(65%), 이민문제(46%) 그리고 외교정책(46%), 총기 규제(43%) 순으로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공약이 아닌 분명한 입장과 시행 세부 정책들을 듣고 싶어 한다.
- 복음주의자들 역시, 경제(69%), 종교적 자유(67%) 그리고 낙태(64%) 순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7. 목회자들, 미국 교회 제자훈련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
- 미 크리스천 성인들 중 52%는 제자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훈련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극명하게도, 불과 1%의 목회자들만이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60% 이상의 목회자들 교회에서 시행되는 제자훈련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8. ‘후기 크리스천 시대’로 이미 접어든 스코틀랜드 사례의 교훈.
- 미국보다 더 심각한 세속화에 들어선 스코틀랜드 교회의 리서치 결과를 통해, 후기 크리스천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미국 교회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 역시, 무종교인의 증가, 교회 출석율 하락, 그리고 성경과 멀어지는 성인들의 증가로 인한 세속화 현상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완만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통해, 미국 교회는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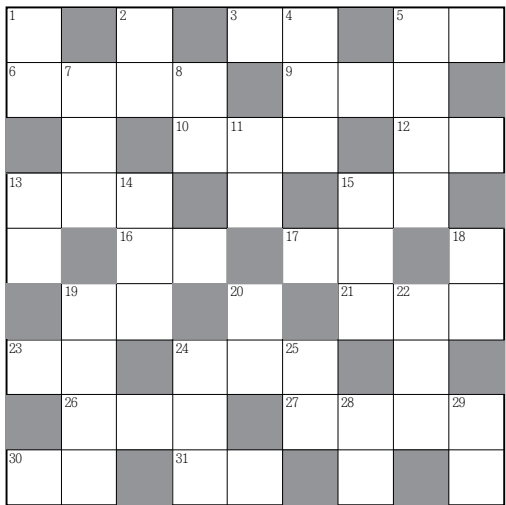
9.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증가
- 많은 요소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 미비를 언급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다.
- 불과 17%의 여성 크리스천들만이 교회에서 잘 후원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을 정도로 교회로부터의 지원이나 장기적인 대책 없이 그저 헌신과 봉사만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한다. 일방적인 헌신과 봉사에서 벗어나 교회로부터의 지원과 관심을 받는 관계적인 연결이 반드시 동원되어야만,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딸들을 지켜낼 수 있다.

10.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현 거주지에서 머물고 싶어 한다.
- 많은 커뮤니티들에 있어서, 현재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쟁점은 바로 “뿌리 없음”논란이다.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동성은 사회적 유대를 줄이고 있고 범죄와 같은 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직장이나 환경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에, 소위 “유목 미국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기에 “뿌리 없음”이 문제가 된다.

- 따라서 이러한 염증을 반영하듯이, 미국인들 59%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미국인들 불과 25%만이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에서 평생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이처럼 자주 옮겨 다니는 원인들은 무엇일까?
-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가족이다(42%). 결혼이나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옮겨 다니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장 때문에 현 거주지에 살고 있다(28%).

십자말 • Cross Word (III)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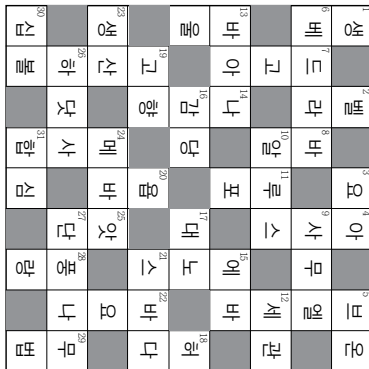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아삼의 아들 사관(왕하18:18).
2. 모압의 한 성읍(민32:3).
3. 유다지와 레가 사람 드나나 아들(대상4:12).
4.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낳은 아들(삼상1:20)
5.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민33:13).
6. 외국과 거래하는 물건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세금을 받는 정부기관(마9:9).
7. 베냐민 자손인데, 이소브셋을 죽이고 다윗의 은총을 받으려 했으나 사형 당함(삼하4:2).
8. 유대 용량의 한 단위(창16:36).
9. 일을 능히 해냄(창32:10).
10. 몹시 화를 냄(창32:19).
11.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창24:4).
12. 유다지파에 있는 마레사 근처 골짜기(대하14:10).
13. 아이를 낳음(창16:1).
14. 모압 대지에 있던 성읍(수13:18).
15. 예스더의 유대 이름(예2:7).
16. 낙역교목, 손바닥 모양의 잎이 가을에 빨갛게 물든다(겔31:8).
17.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선지 발람을 보냈던 모압왕(민22:2).
18. 많은 사람이 마음을 한데 합함(사20:11).

<세로 푸는 열쇠>

1. 랍비 아닌 한 베(마9:16).
2. 에돔 왕인데 브올의 아들(창36:32).
3. 벨라의 아버지(대상5:8).
4.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곳에 거주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맹약하였다(창21:31).
5. 유대의 성읍이며 야모스 선지의 고향(암1:1).
6. 유다의 남방에 있는 시므온의 성읍(대상4:33).
7. 로마의 신도이다(롬16:13).
8. 본명은 사울, 길리가야 다소 사람(행13:9).
9. 항의 일출(창30:34).
10. 아담의 손자요 셋의 아들(창4:26).
11. 몹시 많은, 수두룩 함(신31:17).
12. 앗수르국 카불강으로 율택함을 받는 비옥한 지방(왕하17:6).
13. 지중해 동안에 돌출한 160척 산성 위에 건설된 성읍.
14.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던 곳(행10:5).
15. 시몬 베드로에게 주어진 별명(마16:17).
16. 에돔 왕 하달의 처 브레다벨의 조부(창36:39).
17. 스름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스 2:59).
18. 바람과 물결(행27:18).
19. 법이 없음(벧전4:3).

십자말 정답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방송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5년 1월

- 1월 ~ 10월
11월 ~ 13월
22일 ~ 31일

5월

- 1월 ~ 14일
18일 ~ 24일

6월

- 1월 ~ 4일
8일 ~ 15일

7월

- 6일 ~ 18일
20일 ~ 29일

8월

- 3일 ~ 6일
9일 ~ 20일

9월

- 6일 ~ 8일
14일 ~ 21일

10월

- 4일 ~ 7일

- 11월 ~ 14일
19일 ~ 22일

11월

- 1월 ~ 7일
8일 ~ 15일

12월

- 7일 ~ 10일
13일 ~ 20일

2014년 1월

- 1월 ~ 1월
10일 ~ 12월

2월

- 3일 ~ 6일
10일 ~ 13일

- 20일 ~ 22일
21일 ~ 23일

3월

- 1월 ~ 8일
10일 ~ 13일

4월

- 7일 ~ 9일
10일 ~ 13일

5월

- 1월 ~ 10일
12일 ~ 15일

6월

- 9일 ~ 11일
16일 ~ 19일

7월

- 1월 ~ 10일
14일 ~ 17일

8월

- 4일 ~ 7일

- 11월 ~ 12월
18일 ~ 20일

9월

- 1월 ~ 6일
13일 ~ 16일

10월

- 15일 ~ 7일
13일 ~ 16일

11월

- 1월 ~ 8일
20일 ~ 23일

12월

- 1월 ~ 3일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00)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24)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에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기초들과 신학적 기초들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으며, 지금은 한인교회를 위한 철학적 기초들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기본적인 철학적 담론들 중 형이상학(Metaphysics)이라는 범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이상학은 영어로 하면 "Metaphysics"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 meta(뒤, 혹은 위)라는 단어와 physika(자연학)이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때문에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흔히 오늘날 우리들은 형이상학이란 인간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 이상의 추상적인 어떤 것에 대한 질문들-즉 어떠한 존재의 근본 혹은 근원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그 하부 질문들 즉 신, 인간, 존재, 우주 등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파악하려는 인간 이성

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개념의 형이상학과 그 질문들이 우리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힘들게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얼핏 보면, 이러한 형이상학적 질문들과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는 아무 상관도 없고 매우 멀어보이는 개념들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사도바울이 골로새서 2:8에서 경계한 그 철학이란 것은 원문을 보면 모든 철학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허되고 속임수가 있는 철학(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 즉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교문을 따르는 그러한 세계관, 즉 위의 인본주의적 혹은 무신론적 세계관을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탄한 것들을 경계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다지는데 있어서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묻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오히려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공고히 해줄 수 있는 좋은 장치입니다. 이는 삶의 근본적 질문들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합리적으로 대답하는 일이나가요.

그 토대가 성경 위에 세워지는 한 이는 오히려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

제1철학 형이상학은 존재의 근본을 묻고 연구하는 것
신앙을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공고히 해줄 좋은 장치

스토텔레스는 사실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형이상학은 "실제로 실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묻고 숙고하는 것으로서 존재의 근본 혹은 세상의 궁극적 근거를 연구하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제 1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식물 등을 연구하는 부문을 "자연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후 후세들이 그의 유고를 정리면서, "제1철학"에 관한 것을 "자연학"에 관한 것 뒤에 놓아 편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존재의 근본을 묻는 철학을 "metaphysika(자연학의 뒤에 있는 것)"이라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말로 형이상학이란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용어 "Metaphysics"를 "형이상학"이라고 번역할 때, 형태를 갖기 이전의 혹은 이를 초월하는 근원적인 사물의 본래 모습을 '형이상'으로 이해하고,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질 혹은 사물을 '형이하'라고 파악 하였던 중국 철학을 바탕에 두고 번역하면서 갖게 된 의미입니다. 즉 형이하학을 physics(물질)에 관련된 것에 대한 질문으로, 형이상학을 physics(물질)을 meta(초월)하는 어떤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형이상학의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인 "신은 어떤 존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개인의 세계관 즉 신관은 우리가 교회 교육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그 내용적 핵심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보다 더 우리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기초가 될 만한 것이 없을 것인

다. 올바른 신관(신에 대한 관점)이 없이는 그 어떤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도 다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의 신이란 존재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이라면 그는 신을 유일하신 창조주로 또한 전지전능한 존재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신에 대한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그리스 로마신화 같은) 그는 신이란 존재는 인간과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으며, 전능하지 않으며, 유일한 신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신이 있다는 다신론을 믿을 것이다. 또한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신이란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의지할 전능한 존재를 갈구하는 인간의 유약함이 만들어 낸 존재로 이해할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교문을 따름이요

계상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에 대한 관점을 정립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함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nothing)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가는 것이므로, 그 세계를 이해하는 건전한 틀거리 즉 성경적 세계관을 세울 수 있으며, 그래야만 그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세계를 해석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바로 형이상학적 질문들이며, 우리 사역자들의 몫은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 세우고, 이를 우리의 교육 속에 녹여냄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고 또한 그들 스스로도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을 세워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인교회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어떠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형이상학의 또 다른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 "인간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한 질문" 즉, "인간론"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게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라(삼상18:22-27)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속된 음모 가운데서도 다윗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 사울왕에게 겸손하게 충성하는 다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하는 행동을 볼 때 누구든지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정도로 심하게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변함없이 사울왕을 사랑하고 사울왕

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충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삼상18:27-29)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도 보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

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두려워 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삼상18:30)

우리에게는 아무리 봐도 너무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일이 조금 안되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조그마한 나의 약점이 발견돼도 우리는 금방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증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 상황에 걸리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

블레셋 방백"들의 작전과 공격은 치밀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함으로써 계속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신실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축될 때가 많은데 전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이름이 심히 귀중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삼상19:1)

본문은 사울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왕궁을 탈출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신앙의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실한 성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날이 갈수록 사울은 충성된

성도는 죽이려고 하고 아무하는 신하들만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진정한 누가 함께 나라를 세우나 갈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을지라도 진정한 나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 우리 신앙은 더욱 견고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삼상19:2-6)

내가 어려울 때 신앙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사울왕이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순간 다윗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이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 다윗 곁에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

에서 언약을 맺고 서로 너무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다윗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효자이기도 했지만 사울왕의 명령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울왕의 신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단도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삼상19:7-10)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요나단은 다윗을 철저히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울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잠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사울 앞에 나간 다윗은 그전과 조금도 다름 없이 나라에 충성하고 사울이 악신이 들어있으

니까 또 가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쁨부음을 받은 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위험한 순간을 맞지만 한순간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 - 토 : 오전 9:30 - 오후 8:00

- 기독교서적
- 기독교용품
- 일반서적
- 서예용품 전문
- 2016년 달력제작

CJ 택배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본지가 보도한 2015년 한인교계 10대 뉴스

<순위는 보도 날짜 순>

1. 동부 '눈폭풍 경보' 발령 교계행사 연기 (1519호, 10면)



26일과 27일 미 북동부 지역에 내린 '눈폭풍 경보'(blizzard warning)로 인해 뉴욕일원의 교계 행사들이 잇달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뉴욕장로연합회 신년하례회,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 PGM 중보기도회, 미주한인여성목회자연협회(회장 전희수 목사) 예배 세미나 등.

뉴욕시는 26일 오후 1시부터 27일 자정까지 35시간 동안 눈폭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뉴욕시는 26일 오후 11시 이후 모든 차량의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으며 예상 적설량이 12~18인치에 이른다.

이번 눈폭풍 이후에도 미동부 지역에는 낮 최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됨에 따라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1월말~2월초에 잡힌 교계 행사들의 일정에도 다소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2. 비자장사 한국계 직업학교 4곳 기습단속 (1526호 11면, 1521호 9면)

유학생들의 신분문제를 이용해 학교 운영을 해왔던 자들이 연방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는 조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3월 11일 LA 한인타운과 알함브라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지난 10여년간 여학원 등을 운영하며 이른바 학생비자 장사를 해온 심희선 씨와 학교 관계자 문찬형, 최은영 씨 등 한인 3명을 비자 사기, 돈세탁 등 20여건의 혐의로 체포, 연방대배심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09년에 폐교된 유니온신학교처럼 불법으로 운영 중인 학교들이 감지돼온 만큼(본지 2월 14일자 9면 참조) 학교운영과 학생들의 학교선택에 주의가 요구돼왔다.

3. 선한목자장로교회 PCUSA 탈퇴 (1528호 9면)



LA 동부지역 소재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가 PCUSA를 탈퇴하고 ECO교단에 가입하기로 의결했다.

본 교회는 지난 3월 22일 745명이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찬성 709, 반대 33, 무표 3표(95.2% 찬성)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교단 탈퇴 및 ECO교단으로의 가입을 의결했다. 샌가브리엘노회 소속인 선한목자장로교회는 미국장로교회가 동성애 등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방향

으로 움직이자 3년 전부터 교단 탈퇴 절차를 진행해왔다.

소속 샌가브리엘노회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개교회가 신앙 양심에 따라 교단을 탈퇴하기 원할 때,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교인의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Trust 조항을 이용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GDP(Gracious Dismissal Policy, 은혜로운 결별 정책)를 만들어 재산을 갖고 교단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본 교회 역시 이 GDP의 가이드라인대로 협상을 진행해 노회와 합의에 이르러 작년 3월23일 공동의회를 열고 91%의 찬성으로 합의문의 승인을 통과시킨 바 있다.

4. 미주교계에 불어닥친 CCM 저작권 요청 파문 (1538호 11면, 1541호 9면)

최근 미주교계에서는 예배에 사용되는 CCM에 대한 저작권 요청을 담은 편지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CCLI 한국지사 대표 함승모 씨는 "창작물은 국가가 지정한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저작권 관련단체 중에는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에서 홈페이지에 음원을 올렸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세 번째 분배시스템이다. 지불된 저작권료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GMCA, 대표 김석균 목사)는 최근 미주지역에서 일어난 옐로힘 EPF(대표: 차종연)의 미주 한인교회 대상 저작권료 요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찬양작곡가 300여명의 저작권자들을 대표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5. 연합과 회복...2015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1540호 10면)



뉴욕교계 최대 행사인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가 소강식 목사를 강사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뉴욕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오라"(삼하6장)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강사 소강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는 "예수가 소망이다"(행16:6-10), "교회여 연합하라"(엡1:22-23),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오라"(삼하6:13-16)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화합과 회복을 강조한 2015할렐루야대회를 주최한 뉴욕교협은 마지막 날 대회선언문에서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앞장서며, 이를 위해 예배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며, 남북관계 등 복음적 화해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과 사명완수에 전심전력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 이단 세속화 동성결혼 등에 대처할 것을 대해 언급했다.

한편 같은 시간 프라미스교회 체육관에서는 조 F. 김 목사를 강사로 어린이대회가 열렸다.

6. 뉴욕장로교회 이성한 목사 전격 사임 (1541호, 10면)

지난 7월 5일 뉴욕장로교회는 이성한 담임목사 사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공동의회를 3부 예배 후 열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597명중 3



분의 2가 넘는 403명(68%)이 이성한 목사의 사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성한 목사는 뉴욕장로교회 4대 담임목사로 청빙받고 2013년 7월초 부임해 만 2년 동안 사역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임직식을 갖고 7명의 장로를 세웠다. 이들은 당회원이 된지 9개월여 만에 담임목사의 사퇴를 요구한 셈이 됐다.

한편 이성한 목사는 뉴욕장로교회를 사임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11월 8일, 그레이넬에 위치한 미국교회당을 빌려 세이비어교회 개척 첫 주일예배를 드렸다.

또 뉴욕장로교회는 지난 12월 13일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58%의 지지로 PCA 교단을 탈퇴했다. 이로써 뉴욕장로교회는 이성한 목사 취임 후 가입한(2014년 4월) PCA 교단을 1년만 만에 다시 탈퇴하게 됐다.

7. "인터넷 최바울 이단성 여전"(1549호 11면)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 선 목사)가 주 최 한 이단대책세미나가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8월 29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선교회와 최바울 씨에 대해 다뤘다.



한선희 목사는 "이미 인터넷에 대한 세미나는 지난번 세계기독교연결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다룬바 있다. 하지만 지난번 세미나 이후부터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다루기 위해 세미나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인터넷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전스쿨을 개최한 교회의 공통점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건강한 선교단체라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사상은 배교야, 이원론, 신사도운동, 임박한 종말론 등이 얹혀있어 심각하게 비성경적이다. 문제는 이들의 주 타깃이 청년들이라는데 있다"고 말했다.

8. 평화통일 한 목소리...분단70년 LA통곡기도대회 (1554호 9면)

그날까지선교연합(UTD/대표 손인식 목사)과 해외3천인목사단이 주관하고 남가주 모든 한인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최한 '분단 70주년 통곡기도대회'가 10월 4일 오후 4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연합찬양팀의 찬양과 환영영상으로 시작된 통곡기도대회는 손인식 목사의 환영사와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 총장)의 개회 선언으로 뜨겁게 시작됐다.

이날 고태형 목사, 김성민 목사, 김인식 목사는 교회

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을 향해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 피 흘림과 보복이 없는 통일, 한민족이 위대한 나라 되는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통일 주역이 되게, 한국교회가 교만과 허영에서 돌아서게, 통곡기도의 불길이 휴전선을 태우게, 한국교회가 통일의 주역을 담당하게 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했다.



9. 남가주교협 회장선출 무산...초유 사태 발생 (1561호 11면, 1558호 11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혁 목사)가 개최한 제46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1월 23일 오전 10시30분 중앙루터교회(담임 홍영환 목사)에서 열린 총회는 시작부터 지난회기 회의록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엄격하게 진행됐다. 특히 차기회장후보로 나왔던 강신권 목사에 대한 회장후보 취소과정에 대해 회원들 간 논쟁이 이어졌으며 결국 수석부회장 후보로 등록된 김재울 목사에 대한 인준이 통과된 상태에서 정회됐다.

점심식사 후 속개된 회의에서 강 목사에 대한 소명발언권 여부로 대립각을 이뤘으며, 결국 개인프라이버시 문제로 소명의 시간은 주어지지 못했다.

한편 11월 2일 오전 10시30분 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남가주교협 총회는 신임회장으로 예정된 수석부회장 강신권 목사에 대한 검증 요구청원에 대해 남가주교협 공천위원회에서 최종반기로 하고 강 목사의 회장후보 공천을 부결시켰다.

10. 미국의 부흥과 회복위한 다민족연합기도회 (1562호 9면)

초겨울 남가주에나하임에 미국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회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11월29일 에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KCCC 찬양팀(찬양인도 박종술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한기홍 목사(다민족연합기도회 대표대회장/은혜한인교회)의 환영인사, 루 앵글 목사(The Call 공동창립자)와 제리 더만 목사(더락 처치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회개 △교회와 가정 △학교와 문화 △국가지도자 △사회정의와 변화 △부흥과 선교라는 주제로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번 기도회는 그동안 해왔던 각 민족별 기도회를 탈피해 모든 민족이 한자리에서 기도회를 가진 진정한 다민족 연합기도회로 드러지게 됐다.

(정리: 박준호 기자)

히브리어·헬라이어

원문번역성경 (신약)

번역·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구약 출간예정

신약 신간

고영민 번역·주석 | 백종규(월간목회) 기획 2,106면

이형규(쿰란출판사) 발행 값 59,000원

히브리어·헬라이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본서의 12가지 특징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재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지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약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의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www.qum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6

Tel. 02-747-1004

쿰란출판사